

# 홍성문차

계 간

겨울

홍성문화원

제21권 4호 통권 149호

1989년 11월 23일 충청남도등록 충남바01100호

·발행인: 이하영

·편집인: 정재범

·발행일: 2002년 12월 (겨울호)

·발행처: 홍성문화원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412-13 ☎ 041)632-3613)

·인쇄처: 조양인쇄사 (☎ 041)632-2363)



## 한해를 돌아보며

— 문화원의 한해를 돌아보며/편집부/3

## 우리고장의 명산을 찾아

— 홍성의 명산 백월산/정태봉/16

## 思索의 샘<1>

— 교육방법 변화의 필요성/편집부/28

## 홍성문화예술단체소식

— 열린공간 동지문화센터 활동상황/편집부/45



## 수암산에서



현 자 시인 · 홍주문학회원

오늘 나 홀로 호젓이 숲길로 들어섬은  
당신과 함께 하는 이 세상의 넉넉함을  
고즈넉이 한껏 바라보고 싶어서입니다.

당신으로부터 한 발 한 발 떨어져 나와  
수도 없이 섞바뀌는 바람결에 채여 떠돌다가도  
다 저녁 때 내가 한 잎,  
숫대만큼 기다림이 길어진 당신 어깨를 툭 건드리면서  
기다렸어요? 반갑게 떨어질 수 있을 테지요.

처음엔 한동안 낯설은 숲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내 귀에 박새 소리 들리고  
나뭇잎들 서로 해살대며 몸 부비는 소리  
하고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로지 나를 위해서 먼발치까지 환히 불 밝혀주는  
한 사람이라,

사랑은 아주 아주 한참 뒤  
가을하고도 11월의 뽁뽁 우는 바람 끝에 있었지요.  
수암산 자락 해거름에 오히려 여유초이  
마가목 발간 늦얼매 같은 사랑이  
흔들리는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 홍성문채

2002/겨울

계간/팔지 않는 책

- 2 우리의 다심 · 또 한해를 보내며 · 편집부
- 3 한해를 돌아보며 · 문화원의 한해를 돌아보며 · 편집부
- 6 홍성의 마을제 【洞祭】 ⑮ · 당산제 · - 광천읍 용암리 마을 - · 김정현
- 12 홍주골 사람사는 이야기 ⑨ · 교통안전어머니회 홍성지회의 지킴이, 김덕자 님을 찾아서 · 권기복
- 16 우리고장의 명산을 찾아 · 홍성의 명산 백월산 · 정태봉
- 22 건강 · 남자의 폐경기 증후군 · 김용신
- 23 홍주의 얼을 찾아서 · 홍주목사 이수광(李粹光) 편(篇) · -72/365 5일은 점기초신의 마디- · 배동순
- 26 담 안에서 띄우는 편지 · 나누는 마음 · 고광철
- 28 思索의 샘 <1> · 교육방법 변화의 필요성 · 편집부
- 30 내포제 시조를 따라서 · 시악(詩樂)의 근원(根源) · 박병규
- 32 민간요법 · 반쪽양반의 건강이야기 · 윤필준
- 34 백두산기행 · 백두산을 다녀와서 · 최규원
- 36 홍주마당  
애기똥풀꽃 · 김상구  
겨울눈 · 김임무  
이웃마을로 떠난 가을여행 · 김성자  
한문은 나의 유일한 친구 · 김현영  
겨울단상 · 구명희
- 45 홍성문화예술단체 소식 · 열린공간 동지문화센터 활동상황 · 편집부
- 46 알아보는 생활상식 · 편집부
- 48 회원모집 안내 · 편집부

홍성문화원 발행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412-13  
발행인 이하영  
편집인 정재범  
2002년 12월  
통권 149호  
1989년 11월 23일 등록  
전화)041-632-3613  
634-9659  
인쇄처 · 조양인쇄사



## 또 한해를 보내며

서기 2002년도 시간 속에 묻혀 사라져 간다. 연일 조용한 날이 없다시피 어수선한 속에서도 흐르는 시간을 멈출 사람은 있을 수 없었던 것이다. 대통령 선거도 12월 19일로 끝나고 12월 25일 성탄절을 하얀 눈 속에 홍성은 고요히 잠겨있을 뿐이다. 각종 선거가 있을 때면 늘 생겨나는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 인간이 인간을 믿지 않는 불신과 배신으로 인한 후유증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 같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의 한 말 중에서 우리기에 남는 말이 있다. 「모든 사람을 감싼동안 속일수도 있다. 소수의 사람을 늘 속일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늘 속일 수는 없다.」 타당한 이야기이다. 모든 사람을 항상 속일 수 없다는 것이 진리인 것이다. 여러 사람들의 대다수가 믿음을 가지고 선거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지니고 내일을 향해 열심히 살아나가는 것이다.

단테가 지은 「신곡(神曲)」을 보면 인간의 죄 중에서 배신의 죄가 제일 큰 중죄라고 했다. 신의를 배반하는 것이 배신이다. 배신은 신의 배반이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부끄러운 일이요, 파렴치한 행동이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 나가려면 선거라는 과정을 치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선거란 다수의 입후보자들 중에서 나 스스로를 대변해 줄 수 있는 말하자

면 내가 평소에 간절히 생각했던 사실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을 때 그가 장담하는 공약사항에 공감될 때 투표장에서 그를 선택하는 것이 선거일뿐이다. 일단 선거가 끝나면 우리 모두가 조용한 가운데 지켜보면 되는 것이다. 선거 운동하느라 서로 승리를 목표로 맹렬한 선거홍보전에 나섰더라도 일단 투표가 끝난 후에는 패한 자는 승리한자에 축하와 격려의 뜻을 보내고 승자는 패자에게 따스한 덕을 베풀 수 있는 미덕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미래가 아름답다워 질 것이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항상 아름답게 살아야 된다. 아름답게 산다는 것은 아름다운 마음에서 우리나라가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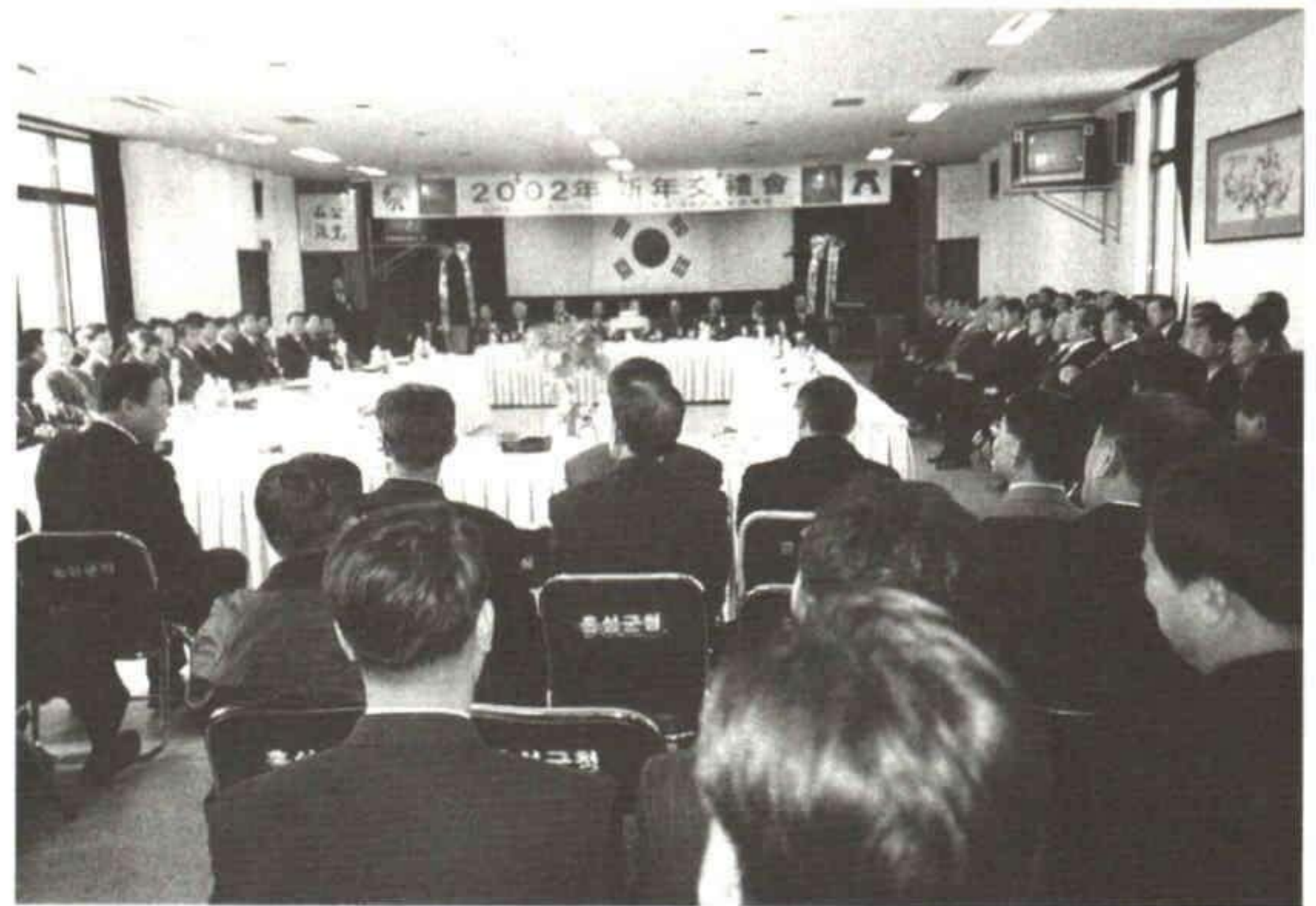
네가 있어야 내가 있다는 것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것, 꽃과 나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아름다움을 진실로 알 때 우리는 신에 대해 감사할 줄을 알게된다. 사람을 대할 때 먼저 믿으려하고 사물을 보는 것을 아름다운 마음으로 볼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신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진실로 아름답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 문화원의 한해를 돌아보며

임오년 한해를 보내며 신년교례회를 시작으로 해서 문화원의 한해 업무가 시작된 것이 엇그제 같은데 새로운 한해를 준비하는 신년교례회 준비를 또다시 하게 되었다.

서로의 화합과 흥성의 문화발전을 위하여 각 계 각층에서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으로 한해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문화발전을 위한 흥성주민의 관심이 한층 더 높아진 것 같다.



2002년 신년교례회



서예교실 수강생들

조금씩 향상되어 가는 문화생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행해진 지역사회 교육의 일환인 문화강좌 프로그램으로 정신수양에 도움이 되는 서예교실과 생활한자를 배우고 자격증 취득도 할 수 있는 한문교실, 대중가요와 가곡 등을 배움으로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활력을 주는 노래교실이 있다.



주부노래교실 수강생들

그리고 우리고장의 문화와 역사를 배우고 현장을 학습하는 우리고장역사교실, 종이를 이용하여 집안을 꾸미거나 자신의 정성을 담아 선물을 하고, 아이들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으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닥공예인형교실, 전통건강 유지방법과 자신의 체질, 약초 등을 배우는 전통건강교실이 개설되었다.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하여 주민들이 더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올해 2월 25일(음력 1월 14일) 군민화합을 도모하고, 잊혀져 가는 우리고유민속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정월대보름 민속행사를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지신밟기를 시작으로 시가행진을 하고, 비나리, 민요, 달짚태우기, 풍물, 쥐불놀이를 어린이나 어른을 막론하고 다함께 동심으로 돌아가 소원을 빌고, 쥐불을 돌리며 서로가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문화예술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대교리 3구 가좌동 주민들의 도움으로 행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그외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여 주신 분들과 질서 있게 행동하고, 뒷정리까지 도와주신 주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고장문화알리기는 홍성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자기 고장의 문화인물이나 유적에 대해 알지 못하는 홍성주민들과 학생들을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우리고장의 문화유적에 대한 관심과 홍성을 알고, 아끼며, 친구나 주변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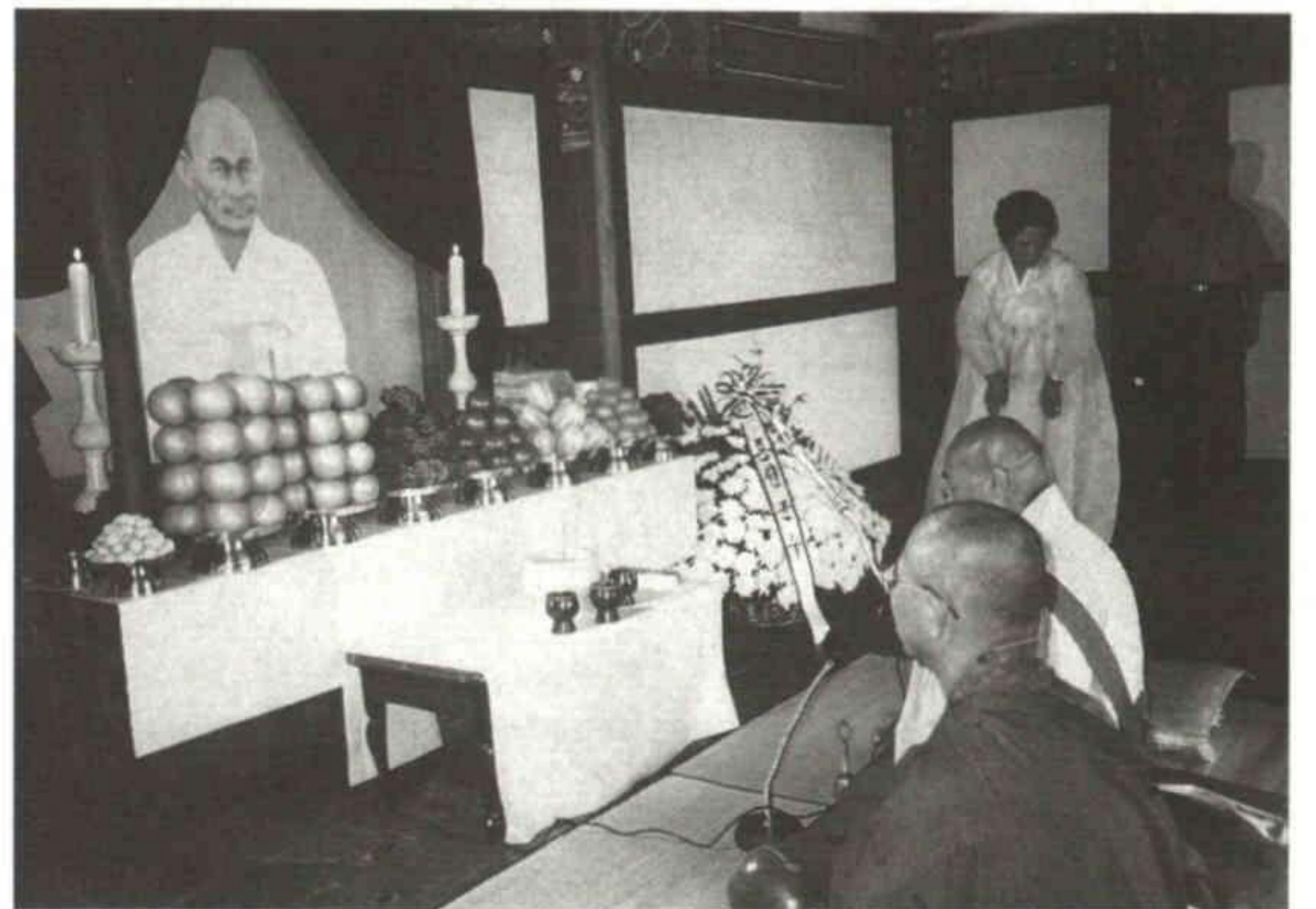
성인된자로 하여금 올바르게 지키고, 행해야 됴를 가르치는 자리인 성년식을 혜전대 야외무대에서 실시하였다. 전통의상을 입고 성년식에 임하는 성년자들의 학생들과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정월대보름 지신밟기



우리고장문화알리기



제58주기 추모다례

만해 한용운 선사의 높은 뜻을 기리는 만해제가 제8회를 맞았다. 2일간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만해제를 알리고, 주민들의 만해선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만해 백일장과 극단 우금치의 '쪽빛황혼' 공연, 한마음 걷기 대회, 연예인 팬 사인회, 문학의 밤 행사를 열었다.



성년식 모습





지역문화축제 '한우리'



영화상영 모습

남녀노소 구분 없이 행사에 참가해 주신 분들께 가벼운 운동과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었으리라 생각된다.

다음날 제58주기 추모다례를 행하였다. 엄숙한 자리인 만큼 이를 계기로 홍성주민들이 만해선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서로 화합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만해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계기로 만해제 평가제를 가졌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 홍성을 대표하는 지역축제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서로 논의하는 시간이었다.

제2회를 맞은 지역문화축제 '한우리'는 작품전시나 공연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참여하여 장기를 자랑하거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참여의 기회를 주는 행사이다.

청소년 태권도 시범이나 시조공연, 주부들의 댄스스포츠 시범, 상여놀이, 트럼펫 공연 등 우리 고유 음악과 춤, 놀이를 비롯해 서양음악을 하나로 묶어주는 자리가 되었다.

요즘은 영화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가 많아졌다. 그러나 아직 홍성은 활발한 영화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다. 극장도 몇 개 되지 않고, 영화를 골라볼 수 있는 선택의 기회가 적다.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자유롭게 영화를 보러 다닐 수 없는 변두리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버스를 운행시켜 극장에서 영화를 보여주고, 주민들에게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는 시간을 만들어 주고자 11월 21일(목) 'YMCA 야구단'을 상영, 주민들에게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아직 많은 행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행사나 문화강좌 등을 개설하여 홍성군민들이 더 나아진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문화원은 주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찾고싶은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상여놀이 시연 모습

- 편집부 -





# 당 산 제

- 광천읍 옹암리 마을 -



김정현 동화작가 · 광동초등학교 교사



## 당산에서 바라본 오서산 전경

- 조사 일자 : 1998년 2월 2일(음력 1월 6일)
- 조사 장소 : 충남 홍성군 광천읍 옹암리 (당집)
- 제 보 자 : 홍용산(남, 89세, 한학 수업, 농업)
  - 사는 곳 : 충남 홍성군 광천읍 옹암리
  - 나서 자란 곳 : 사는 곳과 같음

홍용산씨는 어려서부터 옹암 당산제 지내는 것을 보면서 자랐다. 어른이 되어서는 제관으로 직접 참여한 경험이 많으며, 지금도 마을 노인들과 함께 당산제를 주관하여 지내고 있다. 몇 년 전에는 당집을 복원하는데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 제 보 자 : 김용남(남, 74세, 보통학교졸, 농업)
  - 사는 곳 : 충남 홍성군 광천읍 옹암리
  - 나서 자란 곳 : 사는 곳과 같음

김용남씨는 젊어서부터 당산제 지내는 모습을 보고 자랐다. 지금도 마을 노인들과 함께 해마다 당산제 지내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

- 제 보 자 : 최정연(여, 76세, 보통학교졸, 점복업)
  - 사는 곳 : 충남 홍성군 광천읍 옹암리
  - 나서 자란 곳 : 충남 보령

최정연씨는 젊은 시절에 옹암포로 시집을 왔다. 무속인 생활을 하면서 옹암 당산제에 직접 참여하여 축원을 하고 소지를 올리고 있다.

1. 명칭 : 옹암 당산제
2. 성격 : 산신
3. 당집의 위치 :

‘옹암’이라는 마을 이름의 유래는, 마을에 옹기처럼 생긴 바위가 있다고 해서 붙여진 것이다. 다른 이름으로는 ‘독배’라고 부르기도 한다. 사람들은 옹암이라는 이름보다는 ‘독배’라는 이름을 즐겨 부른다.

독배는 삼십여년 전까지만 해도 서해안 해산물의 집산지로서 번창했던 포구였다. ‘광천 독배로 시집 못간 내 팔자야’라는 노랫가락이 전해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선망했던 포구였다. 독배는 안면도, 고대도, 장고도 등 크고 작은 섬에서 들어오는 해산물이 많았다. 이렇게 인접한 섬지방의 해산물들



은 모두 독배를 통해서 내륙으로 이동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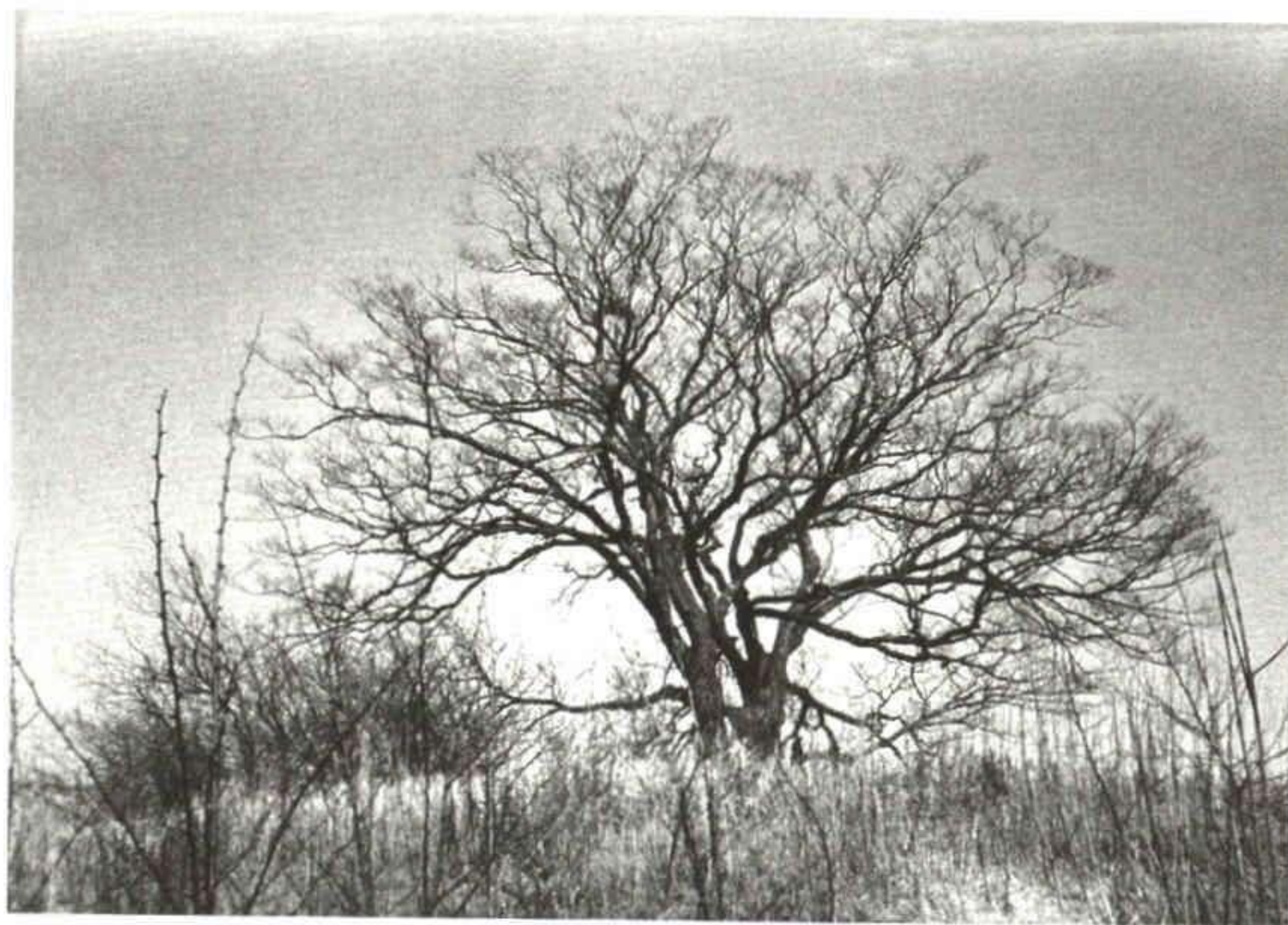
하지만 지금은 토사의 유입 등으로 바다가 얕아지면서 항구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 되었다. 또한 교통기관의 발달로 인해서 해산물의 집산지 기능도 오래 전부터 상실하였다.

독배의 폐항은 한때 전국적으로 번창했던 광천 시장의 영화도 함께 쇠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지금은 광천 독배의 새우젓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용암 당산제를 지내는 당집은 당산이라고 부르는 마을 뒷산에 있다. 당산 옆으로는 장항선 철도가 지나가고 있다. 당산에서 보면 광천 읍내와 폐항이 된 앞바다가 한눈에 바라다 보인다. 당산 뒤쪽으로는 오서산과 아차산이 뻗어 건너다 보인다.

#### 4. 당집의 형태 :

용암 당산제를 지내는 당집은 두 곳이다. 한 곳은 구당집 말랭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당산의 맨 꼭대기에 있다. 이곳은 건물이 있지 않고 몇 백년 된 느티나무가 한 그루 우뚝 서있다. 옛날에는 여기에서 당제를 지냈다. 이 느티나무는 충청남도나무로 지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다.



원래 당제를 지내던 나무

느티나무에서 백여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는 당집을 지어 놓았다. 이 곳을 신당집이라고 부

른다.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원래는 구당집말랭이에서 지내던 당제를, 새로운 건물을 지으면서 신당집으로 옮겨왔다.

하지만 신당집은 오랜 세월동안 비바람에 허물어지고 화재를 당해서 그동안 두 번을 개축했다. 그러던 것을 1985년에 마을 노인들이 주축이 되어 기와집으로 당집을 다시 지었다. 이번에 지은 당집은 세 번째 개축을 한 셈이다. 당집 주변에는 옛날부터 심어 놓았던 신목들이 우람하게 서있다. 일제시대에 심었다는 벗나무들도 고목이 되어 서있다. 옛날에는 이곳에 아름드리 소나무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소나무는 보이지 않는다.

당집은 일자 집으로 가로가 5미터, 세로가 10미터 정도 되는 크기이다. 당집 안쪽의 벽면 맨 오른쪽에 산신령신위(山神靈神位), 가운데에 본당 조부모신위(本堂祖父母神位), 왼쪽에 오방장군신위(五方將軍神位)가 걸려있다. 산신령신위는, 당산의 주인인 산신령을 모신 것이다. 대나무 숲 앞에서 호랑이를 데리고, 왼손에는 키보다도 더 큰 지팡이를 짚고, 흰 두루마기를 입고 흰눈썹과 흰수염을 기르고 서있는 모습이다. 조부모신위는 본당의 주인인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모셔놓은 것이다. 맨 왼쪽에 꽃을 안고 있는 동녀가 있다. 그 옆에 흰옷을 입고 쪽진 할머니가 서있고, 그 오른쪽으로 갓을 쓰고 흰두루마기를 입고 흰눈썹에 흰수염을 기른 할아버지가 서있다. 그리고 오방장군신위는 다섯명의 장군을 모셔놓은 것이다. 장군 한 명은 말을 타고 서있고, 네 명의 장군이 말 뒤에 서있다. 말을 타고 있는 장군은 임경업 장군이다. 임경업 장군은 서해안을 지키는 장군으로 특별히 받드는 장군신이며, 나머지 장군은 이름을 알 수가 없다. 지금 있는 그림들은 그동안 두 번을 도난 당하는 바



람에 세 번째로 구해다 걸어놓은 것이다.

세쪽의 그림 앞에는 제물들을 올려놓을 수 있는 제단이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신단 왼쪽에는 각종 제기들과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대청이 있다.



당산안에 모신 오방대장군

#### 5. 제의 목적 :

용암 당산제의 목적은 옛날에는 풍어와 바다에서의 무사고를 기원하기 위함이었다. 해안 마을로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관계로 바다에서의 무사고와 풍어를 목적으로 했다. 그러나 현대로 내려오면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졌다. 지금은 풍어와 바다에서의 안전보다는 마을의 안녕과 번영, 그리고 당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잘되기를 기원하고 있다.

#### 6. 제일 :

용암 당산제는 해마다 음력 1월 6일에 지낸다. 1월 6일 여섯 시 정도에 당집으로 올라가서 자정쯤이면 내려온다. 옛날에는 이튿날 새벽까지 지냈다고 한다.

#### 7. 제의 주관자 :

제의 모든 절차는 마을에서 뽑힌 제관이 주관한다. 옛날에는 음력 12월 20일에 마을 대동회

를 개최하고, 여기에서 제관을 뽑았다. 제관은 당주, 도화주, 부화주, 전화주, 무당 등이다. 축관은 제관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았다. 이때 당할머니와 당할아버지도 같이 뽑았다.

당주는 당제의 모든 음식 준비를 총괄한다. 도화주는 경비 걸립 등을 총책임 진다. 부화주와 전화주는 도화주를 보좌하는 역할이다. 무당은 제관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굿과 축원을 하고 소지를 올린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절차들이 거의 생략되고 있다. 모든 역할을 마을 노인들이 맡아서 하고 있다.

#### 8. 금기 :

제관으로 뽑힌 사람은 바깥출입은 물론이고 부정한 것을 보지 않고 부정한 행동도 하면 안 된다. 당주는 설날 차례도 지내면 안 된다. 제관과 당집 주변에도 금줄과 황토를 뿌려 놓아서 부정이 타지 않도록 한다. 당제 지내는 기간동안 출산 예정인 부인들은 다른 곳으로 피신을 시킨다.

당제 지내는 기간에는 당집 주변 밭에 냄새나는 거름 등을 뿌려서도 안 된다. 만약에 그런 부정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고 믿기 때문이다.

마을에 초상이 났을 때는 당제를 연기하지 않고 그냥 지낸다. 다만, 초상집에 참가했던 사람은 당제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옛날에는 당제 지내는 기간에 초상이 나면, 손님이 없어서 쓸쓸할 정도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금기 사항이 거의 사라졌다. 제관 등도 특별히 마을 대동회의에서 뽑지 않고 마을 노인들이 맡아서 하고 있다.

#### 9. 제물과 제의 절차 :

제물의 종류는 일반 제사와 별 차이가 없다. 제물의 진설은 산신, 본당 조부모신, 오방 장군



신의 제단 앞에 각각 차려 놓는다. 제물 앞에는 미역국과 메를 지어 올린다.

제의 절차는 오후 여섯 시 경에 당주 집에서 장만한 음식을 당집으로 옮긴다. 지금은 당주를 특별히 정하지 않고 경로당에서 장만한다. 음식은 농악대와 함께 괘자에 싣고 당집으로 운반한다. 맨 앞에는 용대기가 서고 그 뒤에는 음식과 농악이 뒤따른다. 이때 많은 구경꾼들도 같이 따라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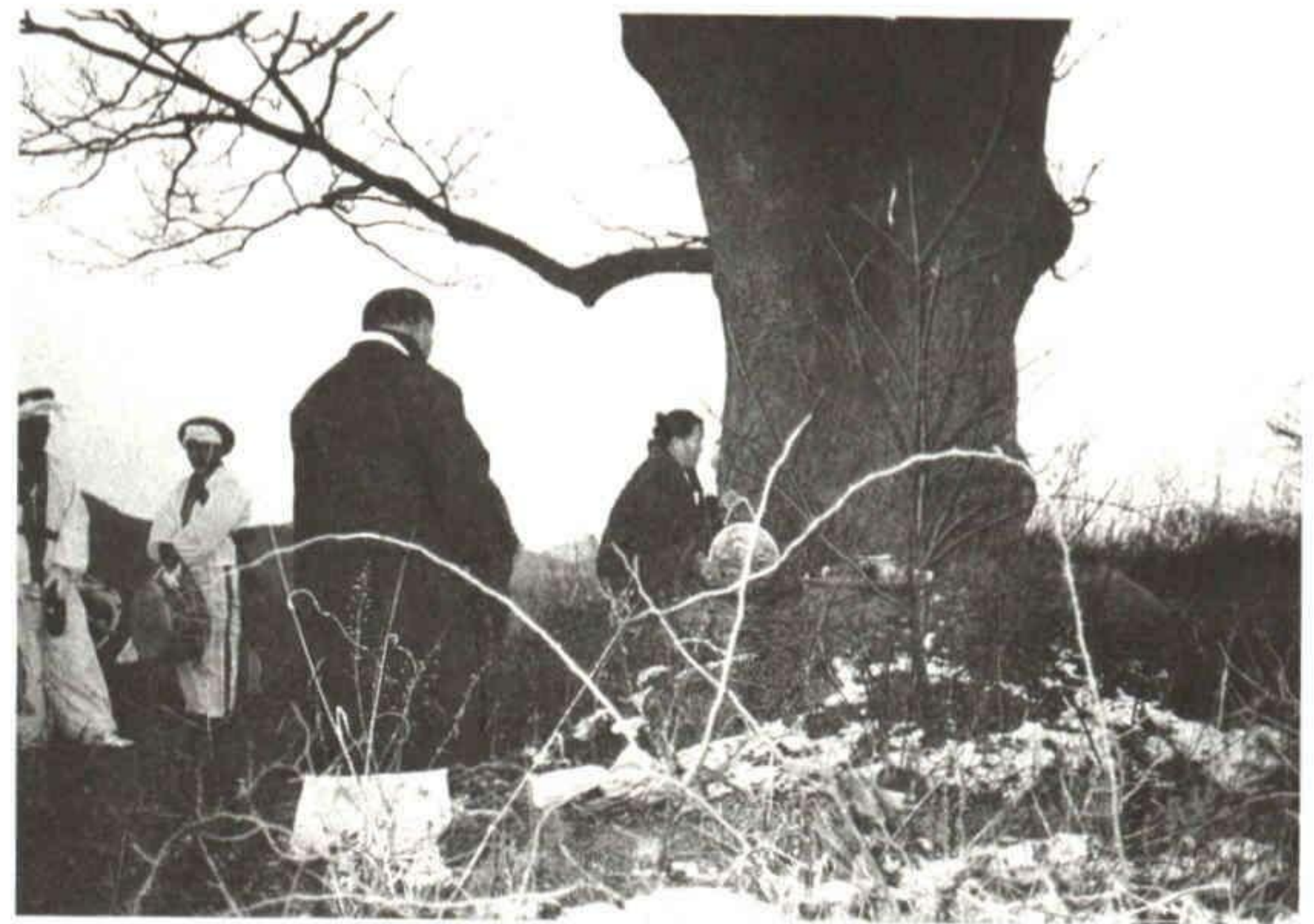
당집까지 올라간 일행은 당집 둘레를 다섯 바퀴 돈다. 이것을 '오방 돈다'고 한다. 다섯 바퀴를 모두 돌면 용대기를 당집 주변에 세워놓고 음식은 당집 안으로 운반한다. 당집 안으로 운반한 음식 앞에서 제관으로 참여한 무당이 간단한 부정풀이를 한다. 부정풀이는 바가지에 물을 담고 고추와 숯을 띄워서 음식 옆에 놓고 경문을 읽으며 한다.

부정풀이가 끝나면 간단한 음식을 차려서 당집 위쪽에 있는 구당 말랭이로 간다. 구당 말랭이의 느티나무 앞에 간단한 음식을 차려놓고 여기에서 먼저 간단한 제사를 지낸다. 무당이 축원을 하고 제주가 절을 하고 소지를 올린 다음에 신당으로 내려온다.

옛날에는 당집에서 먼저 제사를 지내고, 이튿날 아침에 느티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당집에서만 지내고 이곳은 생략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이곳부터 간단하게 제사를 지낸다.

구당 말랭이에서 제사를 지내고 내려온 다음에는 당집에서 저녁 식사를 한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면 날이 완전히 어두워진다. 아홉시 경에는 무당이 축원을 한다. 맨 먼저 산신의 신단 앞에서 축원을 한다. 이때 당제에 참여한 마

을 아주머니들이 각각 차려온 제물을 앞에 놓고 복 받기를 기원한다. 산신 앞에서 무당이 축원하는 시간은 대략 삼십분 정도 소요된다.



구당에서 맨처음으로 제사를 지내는 모습

조금 쉬었다가 다시 본당 조부모 신단 앞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무당이 축원을 한다. 이때에도 참여한 마을 아주머니들이 복받기를 기원한다. 마지막으로 오방장군 신단 앞에서 축원을 한다. 이렇게 무당의 축원이 끝나면 대략 11시가 가까워진다.

축원이 끝나고 제사 지낼 시간이 되면 제주의 지시에 의하여 메와 국을 끓인다. 메와 국을 얹힌 그릇은 제관이 불 위에 직접 갖다 올려놓는다. 메와 국이 끓으면 제관이 각각 세 곳의 신단 앞에 갖다 놓는다. 그리고 제사를 세 곳에서 각각 지낸다.

제사를 모두 지내면 무당이 축원을 하며 소지를 올린다. 소지는 대동 소지를 먼저 올리고 나서 개인 소지를 올린다. 개인 소지는 옛날에는 마을 사람들 전체 세대를 올렸지만, 지금은 원하는 사람들만 올려준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자정쯤 된다.

옛날에는 새벽까지 제사를 지냈다. 당집에서 제사를 마치면 다시 아래로 내려가서 장승제와



거리제를 지냈다.

옛날에는 옹암 거리에 상거리, 중거리, 하거리가 있었다. 상거리는 광남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장승터였는데, 이곳에서 장승제를 지냈다. 중거리는 옹암리 중앙 부근이었는데, 이곳에서는 거리제를 지냈다. 그리고 하거리는 바닷가에서 지냈다. 이 세곳에는 당주도 따로 있어서 음식을 각각 장만하였다.

삼일 후에는 다시 당집으로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간단한 제사를 지내고 내려와서 결산을 한다. 이것을 삼일노기라고 한다. 이로써 모든 절차가 끝난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절차들은 모두가 생략되고 있다.

#### 10. 제의 비용과 결산 :

옛날에는 당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마을 전체가 부담했다. 마을 대동회의에서 제주가 결정되면, 정월 초이튿날부터 농악을 앞세우고 당제 전날까지 비용결립을 다녔다. 그러면 집집마다 성의껏 비용을 내었다.

지금은 이런 절차는 생략되고 관련되는 사람들만 성의껏 내놓는다. 경로당 회원들과 뜻있는 사람들의 추렴으로 경비를 충당하고 있다.

옛날에는 당제를 지낼 때는 소를 잡았다고 한다. 그러다가 차차 경비문제로 제물이 축소되었고, 지금은 돼지머리를 사서 사용한다. 현재 당제에 들어가는 비용은 백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옛날에는 당제를 지내고 삼일 후에, 결산을 했다. 지금은 이튿날 경로당에서 노인들끼리 간단하게 결산을 한다.

#### 11. 마을 사람의 신앙 태도 :

옹암포가 폐항되면서 당제의 분위기는 격세지감을 느낄 만큼 많이 시들해졌다. 또한 당제를 신

성시 여기는 분위기도 많이 사라졌다. 더구나 마을에 교회가 들어서고,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현대화되어서 당제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몇 명되지 않는다. 그나마 노인들이 대부분이다. 옛날부터 전해오는 전통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졌다.

#### 12. 유래 및 전설 :

옹암 당산제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옛날에는 마을 사람들이 어업을 많이 했던 관계로, 이곳에 마을이 형성되고 어업을 하면서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측되어진다. 항상 바다에서 생활하던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빌기 위해 당집을 지어놓고 풍어와 무사고 항해를 기원했을 것이다. 전해지는 기록과 구전으로 미루어 보아 대략 고려 때부터라고 추측되어진다.

옹암 당제와 관련하여 전해지는 얘기들도 많다.

대략 삼사십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마을 이장의 주선으로 당집 주변에 무성한 나무를 옹기그릇 굽는 사람에게 판 적이 있었다. 물론 마을에서 반대도 있었지만, 마을 이장은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나무를 팔고 말았다. 즈말이라는 마을에 사는 사람이 이 나무를 사다가 그릇을 구웠다. 당집 주변의 소나무는 수령도 오래 되고 광술도 많아서 불꽃이 아주 좋았다. 어느 때보다도 그릇이 잘 구워졌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릇을 꺼냈다. 그런데 그릇들은 모두가 서로 엇가락처럼 달라붙어서 하나도 쓸 수가 없었다. 안되겠다 싶어서 고사를 지내고 그릇을 다시 구웠다.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그릇 굽는 주인은 어느 날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흰옷을 입고 수염을 하얗게 기르고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가 기침을 하며 나타났다. 주인은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 옛날부터 사람들은 아무리 나무가 귀하고 땀감이 없을 적에도 이곳 당집 부근에 있는 나무는 건드리지 않았다고 한다

“영감님, 추운데 들어오십시오.”하고 인사를 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는 대답하기를,

“나 들어갈 것 없어. 이제는 내 자리로 다시 가야지.”하면서 그릇 굽는 가마가 있는 곳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러더니 쌓아놓은 나무더미를 쓰윽 쓰다듬고는 어디론지 사라지고 안보였다.

꿈얘기를 들은 식구들은 당산에서 사온 나무라서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했다. 그러니 버리는 것이 좋다고 했다. 그렇지만 주인은,

“너희들이 무엇을 아느냐? 나무도 싸게 사고 활활 잘 타서 좋기만 하다.”고 고집을 피웠다. 하지만 당산에서 사온 나무로 그릇을 구울 때마다 계속 달라붙어서 하나도 쓸 수가 없었다. 대 여섯 가마를 그렇게 모두 버리고 말았다.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그릇 굽는 집의 식구가 십여명 되었는데 그 뒤로 여러명이 죽었다. 어떤 때는 한달 사이에 두 명이 죽는 경우도 있었다. 사람들은 그릇 굽는 집이 산신한테 치골(벌을 받음)을 받아서 그렇다고 했다.

주인은 후에 그릇 굽는 가마터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겼다. 다시 인수를 받은 사람은 그릇을 굽기 전에 무당을 불러서 굿을 했다. 그때 무당이 공수로 말하기를,

“너희는 무섭고 엄숙한 것을 모르고 자유로

살려고 했더니? 인간이 인력으로 안 된다. 다른 참나무를 사다가 때는데 이제는 잘될 테니 걱정 마라. 그릇 가마에 있는 대감님도 나갔다가 돌아오셨다.”고 했다. 그때부터 그릇은 예전처럼 잘 구워졌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아무리 나무가 귀하고 땀감이 없을 적에도 이곳 당집 부근에 있는 나무는 건드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도 그 영험함을 모르고 나무를 베어다 팔아서 받은 벌이라고 생각한다.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얘기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다.

옛날에는 제물로 사용할 소를 이곳 당산에 있는 당집 부근에서 도살했다. 소를 목욕시킨 다음에 그냥 놓아두면 눈물을 줄줄 흘리며 스스로 죽음을 당할 장소로 올라와서 멈춰 섰다고 한다.

한번은 당주 닮은 사람이 집에서 닭을 잡아먹은 일이 있었다. 그런데 당제를 지내고 나서 닭소리 같은 목소리를 내다가 얼마 후에 죽었다. 어떤 당주 집에서는 제물로 차린 음식을 아기가 모르고 먹은 일이 있었다. 아기는 시름시름 앓다가 실명을 했다. 또 다른 당주는 집에서 차린 제물을 미리 맛보기 위해 접시에 담아서 먹으려고 했다.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접시가 짝 갈라졌다. 그래서 음식을 먹지 못했다고 한다.



# 교통안전어머니회 홍성지회의 지킴이, 김덕자님을 찾아서



권기복 홍주중학교 교사

## 어린이들의 수호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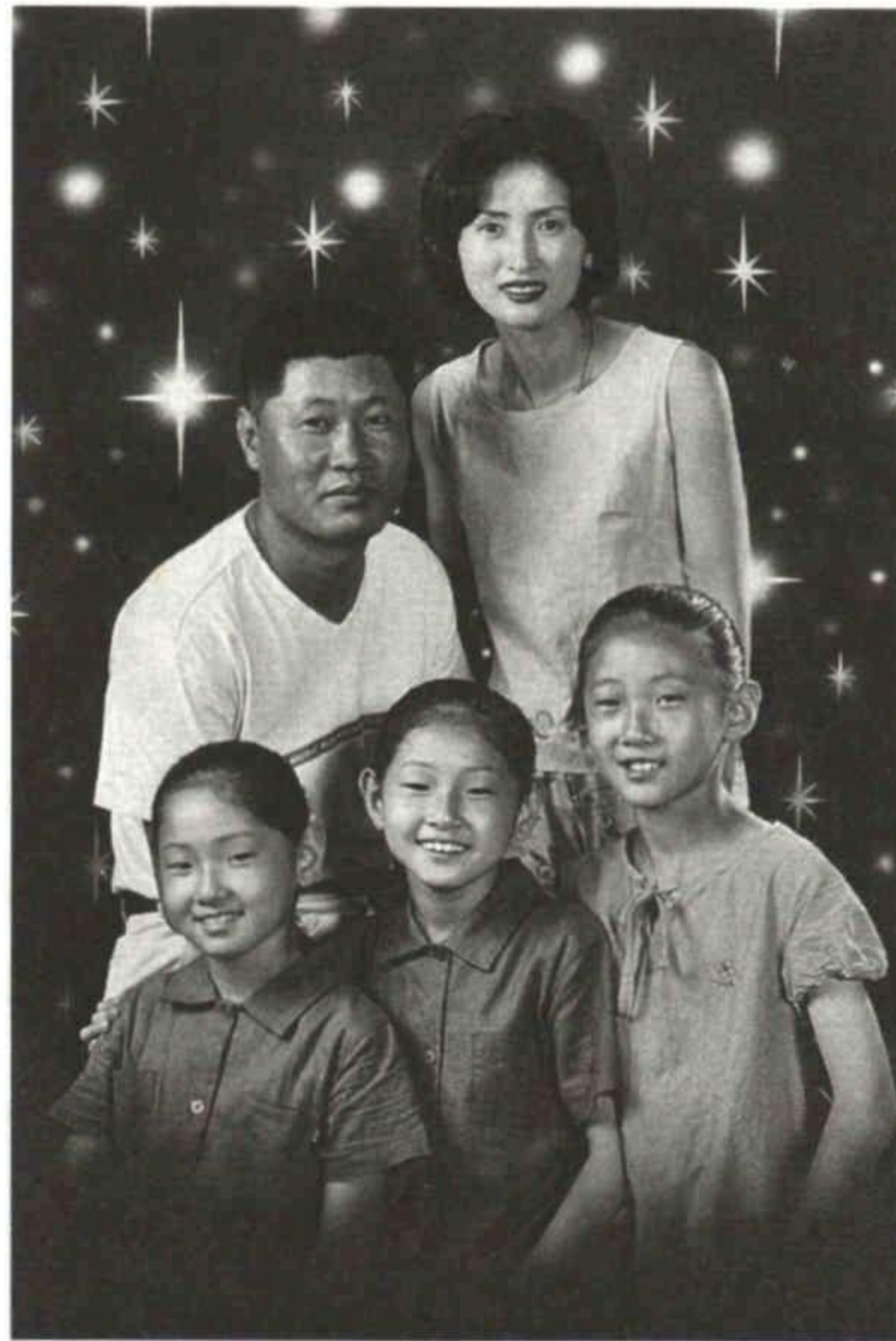
정오를 바로 지난 홍성 읍내의 거리는 따사롭고 북적거렸다. 명동(서울 변화가를 의미하는 듯

하여 내키지 않는 거리 이름이지만)사거리에서 구세군들이 딸랑거리는 소리가 없다면, 귀여운 고양이의 털처럼 부드러운 봄길로 여겨질 정도였다. 이틀 후면, 세계가 북적거리는 성탄일이 아닌가?

홍성 읍내의 전통찻집인 다향(茶香)에서 어린이들의 수호천사를 만났다. 전화를 통해 부군 친구의 부친상으로 거의 밤샘을 했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지만, 피로한 기색 보다는 예전의 해맑은 모습

그대로였다. 혹시 <예전>이라는 말에 토를 달고 싶어할 분이 있을 지 몰라서 자진 신고하면,

작년부터 교통안전어머니회 홍성지회에서 실시한 <교통안전 백일장 대회>에 우연히 심사위원으로 지명되어 올해까지 두 차례 뵈는 것이 전부이다.



단란한 가족의 한때

취재 용무를 말씀드렸다. 지난 호 <홍성문화>를 보여드리며, 부담 없는 자리임을 상기시켰다.

- 오랜만입니다. 그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 = 예. 그런데, 무슨 일로 저를 보자고 하셨습니까?
- 점심때인데, 식사는 하셨습니까?
- = 선생님은요?
- 바빠 나오느라고 못했는데, 뭐 시키죠.

우리는 탁자 유리 안에 메모처럼 끼어있는 떡국을 시켰다. 떡국을 시켜서 먹는 동안



흔한 표현처럼,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이를 두고 하는 것일까?

-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시죠?
- = 현재, 대원펌프카를 운영하는 남편 김동배 씨와 3녀를 두고 있어요. 세 아이 모두 홍남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큰애는 5학년인 김다솜이지요. 그 아래는 쌍둥이인데, 한샘이와 새샘이예요. 둘 다 4학년인데, 막내는 전 선생님 반이지요.

다시 한 번, <전 선생님>이란 사람은 우리 딸의 엄마 되는 사람임을 밝혀야 하겠다. 그러나 김덕자님의 막내딸이 전 선생님과 관련되어 있음은 기억되지 않은 사항이다. 우리 부부는 서로의 학교 생활에 대하여 가능하면 이야기를 하지 않는 편이다.

-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고향은 어디신가요?
- = 예. 연기예요. 중학교 때까지 그 곳에서 살았죠. 고등학교부터는 서울에서 생활을 했어요.
- 고등학교부터 조치원(연기군의 읍소재지)에서 서울로 옮겼으면, 유학하신 거네요?
- = 유학요?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다닌 것도 유학 생활일까요? 중학교를 다닐 때부터 친정 아버님이 지병으로 편찮으셔서 가정이 몹시 궁핍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대전여상에 합격하고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서울에 올라가서 공장 생활을 하면서, 시골집을 도와야만 했지요.

농담처럼 건넨 말에 나는 스스로 부끄러워

해야 하였다. 나도 집 근처에서 고등학교를 못 다니고, 산업체 고등학교를 다닌 두 누이가 있다. 오빠의 대학 때문에 정상적인 고등학교 생활을 포기하고, 낮에는 공장에 다니면서 번 돈으로 내 손에 용돈을 쥐어 준 누이들이다. 나는 그들을 위해 시 한 편 외에는 남겨준 것이 없었다.

- 부군을 만나게 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을 듯한데요?
- = 저는 대학(건국대학교)을 7년만에 졸업했어요. 학생회 간부를 한 죄도 있지만, 학비를 벌어서 다녀야 했기에... 휴학 중에 현대리조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제가 교육파트 주임까지 되었어요. 그 때, 그 회사의 여자 중에서 제일 높은 자리였죠. (잠시, 함께 웃음) 애기 아빠는 그 회사의 과장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쌀쌀맞은 제가 부산에 파견 나가게 되었는데, 가이드를 자청하여 따라와서 일주일 간 구경거리며, 먹거리 등을 일일이 챙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 부군께서 미인에 대한 투자를 단단히 하셨군요. 그럼, 어떻게 홍성에 오게 되셨습니까?
- = 아빠가 현대리조트를 그만두고, 당진에 있는 석산레미콘 회사에 취직을 하였다가 쌍둥이들 3살 때에 홍성에 회사를 차리면서 정착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8년이 지나네요.



**엄마가 지켜주는 등교길 <든든>**

- 그럼, 교통안전어머니회를 조직하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 처음에는 택시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주축이 된 홍성군 안전운전 봉사회에서 자모들을 편입하기에 함께 활동을 하였습니다. 한 1년 정도 함께 활동을 하였는데, 남자 분들과 함께 활동하는 것이 지역사회 인식에 거슬러서 독립을 하였어요. 처음에는 14명의 자모들이 주축이 되어서 출발을 하였습니다. 초대 회장에는 정정순 님이 맡으시고, 제가 총무를 맡았어요. 1년 후에 초대회장 님의 개인 사정으로, 제가 회장을 맡아서 4년째 장기 집권(?)하고 있어요. 현재, 19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지요.
- 모두 미모가 출중하시던데, 회원 영입 때 미모도 봅니까?
- = (웃으면서)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유니폼을 입으니까, 그렇게 본 것이겠지요.
- 그럼, 교통안전어머니회에서 활동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 = 예. 첫째, 홍성군관내 초등학교 순회교육과 경찰서 내 교통교육을 하고 있어요. 매년 봄에 29개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교통



**초등학교방문 교육안전교육**

안전예방교육 및 시청각 교육을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를 하지요. 또, 경찰서 내 교통공원에서 홍성과 인근 지역인 서산, 보령, 청양, 예산, 당진 일대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원생들이 방문할 때, 교육을 담당하고 있어요. 시기는 봄(3~5월)과 가을(9~11월)로 나누어서 춥거나 더운 때를 피하여 하고 있어요.

- = 둘째, 교통사고 유자녀 돕기 사업을 3회째 하고있어요. 부모님의 교통사고로 결손인 가정이나 본인 사고로 투병 중인 초·중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각각 20만원과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68명의 아이들에게 1300만원을 지급하였지요.



**교통사고결손자녀 및 교통장애아 장학금지급**

- = 셋째, 홍성군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백일장 대회를 2회째 실시하였지요. 어린이들의 참여와 호응이 대단하여 교통안전 질서 의식 고취 및 확립을 위한 좋은 효과를 보고 있어요.
- = 넷째, 군청과 경찰서 합동으로 매월 첫째 주 화요일마다 홍성 읍내 초등학교 정문 앞과 구터미널 앞에서 교통질서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 = 다섯째, 홍성 읍내 초등학교 앞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아침 7시 50분에서 9시 10분까지 초등학생 등교지도를 하고 있어요.

= 마지막으로 군청과 교육청을 비롯하여 각 기관의 행사시에 교통지도를 하고 있지요.

20명도 채 안 되는 자모님들의 어디에서 이런 역량이 쏟아져 나오는 것일까? 혼한 표현처럼,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이를 두고 하는 것일까? 필자도 심사료 없이 밥만 실컷 먹여주는 심사위원으로 두 차례 기꺼이 불러갔지만, 아이들에게만은 모든 것이 푸짐한 백일장 대회를 보았었다.



### 교통안전교육 실시 현장 모습

- 바쁘게 사회봉사를 하면서도 가정에 충실하다는 말을 건네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 글썽요. 바깥 생활을 열심히 하려면, 집안 일에 충실하여 인정을 받아야 하겠죠. 첫 번째 업무는 주부 역할이니까요. 그러다보니, 너무나 정신없이 바빠 살아요.

- 부군에 대한 바람이 있다면...

= 그저, 지금처럼만 이예요. 모든 일에 협조를 잘 해 줘서 감사할 뿐이죠.

- 자녀에 대한 바람은요?

= 건강하고, 자매간에 서로 끈끈하게 의지하

면서 살았으면 해요. 막내는 나중에 사회봉사하며 살겠다고 벌써부터 선전포고를 하고 있어요.

- 사회봉사를 하면서 느끼는 보람은요?

= 아빠도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부모의 봉사하는 생활이 아이들에게 세상을 따뜻하고 관심 있게 보게 하여 주어서, 무엇보다 기쁘고 고마울 뿐이어요.

- 앞으로의 바람과 계획이 있다면?

= 우선, 우리 고장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눈물겨운 희생이 없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어머니회가 지금처럼 순수하게 사회의 한 측면에서 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단체로 남기를 바랍니다. 제 자신에 대하여 항상 게으름과 타성으로부터 떨어져서 초심의 마음을 유지하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나중에라도 현재와 같지 않아서 남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어머니회 김덕자 회장님은 각종 표창장과 감사패 등을 받은 것이 근년에만 해도 예닐곱 개는 족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이 없었다. 필자의 부지런으로 찾자면 못 찾을 이유야 없지만, 뜻을 받들어 물어두겠다.

필자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종종 진땀을 흘린 적이 있다. 지금 우리의 아이들은 문밖에만 나서면 교통문제와 직면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내 아이만 안 다치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소시민주의에 젖어있지 않았던가? 봄길처럼 희망이 넘치는 흥성 읍내의 오후거리를 빠져 나오면서, 모든 아이들이 내 아이라는 생각을 되새겨 본다.☆



## 홍성의 명산

# 白月山



정 태 봉

홍성강남공인중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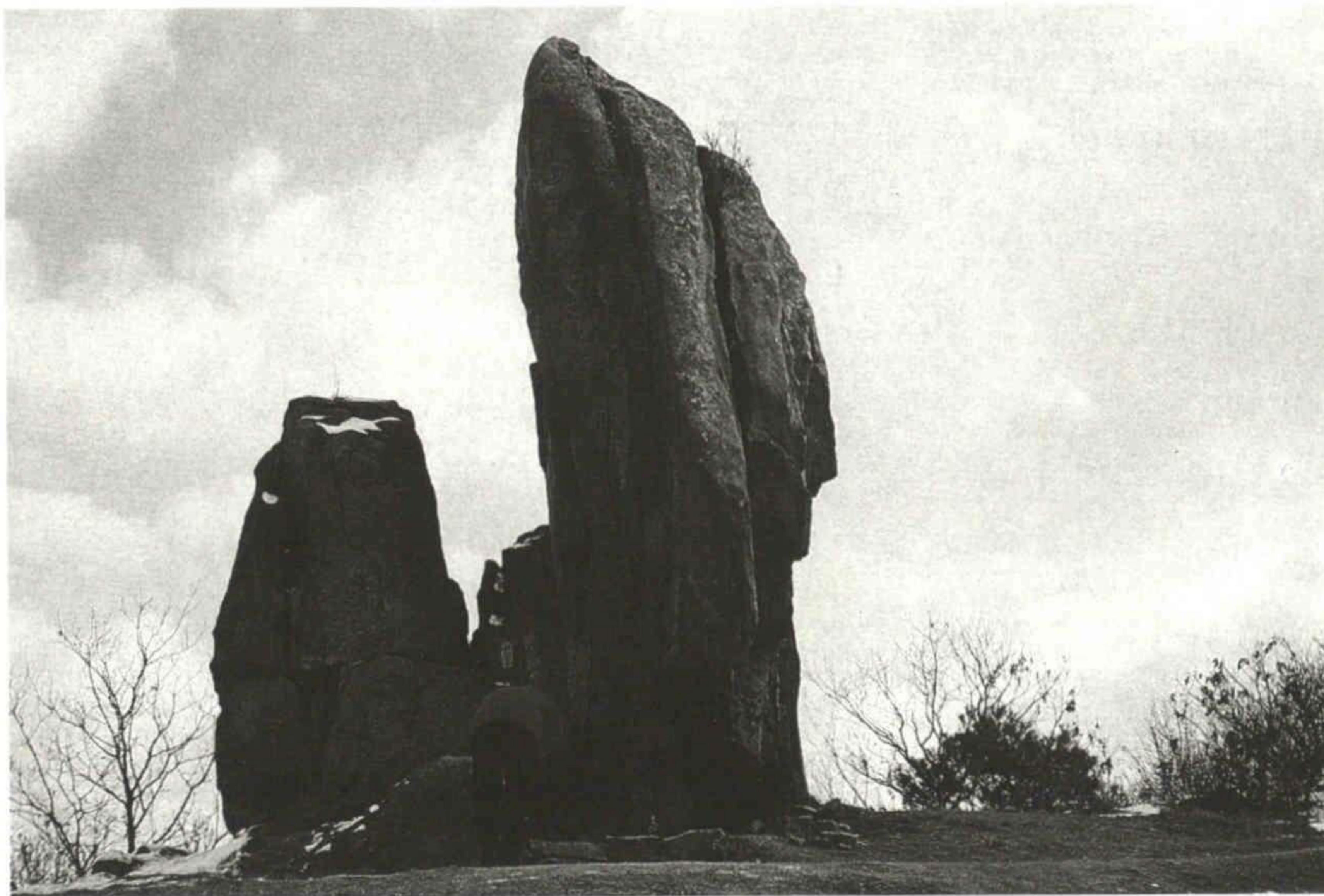
### 신령의 산

홍성읍에서 서쪽으로 해발 394.3m로 우뚝 솟아 중국대륙에서 불어오는 강한 황풍(黃風)을 막아주고 있는 백월산은 홍성을 지켜주고 있는 진산(鎭山)으로서의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예부터 이산을 백월산(白月山), 일월산(日月山) 또는 월산(月山)으로 불려지고 있는데 원래 백자(白字)와 일자(日字), 월자(月字)는 하늘에서 전수 받은 천명(天命)으로 신령을 상징한다. 대개 이런

산에는 신단을 모시고 하늘님께 제사를 올려왔다.

지상에서 가장 존귀한 곳, 즉 하늘에서 내어준 신성한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백월산은 지금도 양천사상의 신화를 산 곳곳에서 엿볼 수 있었다. 산지와 암석의 여러 곳에서 옛날 제사 지냈던 유흔과 형상을



신령님께 소원을 비는 모습

찾아 볼 수 있었고, 이곳을 지나노라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지맥의 정기와 신령들의 배합과 영적인 기(氣)가 감돌고 있었다.



특히 산정에 있는 여신상을 모신 신당에는 이 산의 정기가 집합되어 있는 것 같고, 일월(日月)의 양기를 더 많이 집도하고 있는 것처럼 감수되어 왔다. 마치 우리 인간과 하늘이 일치하여 인간의 유한과 무력을 하늘로부터 구원받고자하는 욕망이 신성스럽게 싹트고 있었다.

백월산의 등산은 그래서 좋다. 메마른 사람들의 가슴에 신의 영감이 육신에 합쳐 현세의 행복을 갈구하고 축복된 삶을 누리보고자 하는 신앙심이 싹트기 때문이다.

백월산에 이러한 신앙을 모시고 제(祭)를 지내게 된 것은 11세기로 홍주를 맨 처음 운주(運州)라 호칭하였던 때였을 것이라고 하니 인간이 하늘님께 의지하였던 운주시대의 여명기라 생각된다. 지금도 그 시대에 이 산에 모태사상을 모시고 제사를 올리던 흔적들이 기암 위에는 비석이 있고 바위면에 색인되어 있는 한자들과 부호들이 낙수(落穗)되어 새겨져 있으니 홍성읍민들의 신령산으로 숭앙 받을 만한 산이라 아니할 수 없었다.

### 옛고을 해풍현

작으만한 자갈들이 때굴때굴 굴러 내릴 듯한 꼬불꼬불한 가파른 오솔길을 올라 산중턱에 올라서니 그 옛날 돌로 성벽을 쌓았던 돌성은 없으나 무너져 내린 성지(城址)가 나타났다. 주위를 둘러보니 3km쯤 됨직하다. 그 성안에는 우물이 하나 있었다하나 찾을 길은 없었다.

어느 문헌에서 보니 삼국시대의 산성이었다고는 하나 믿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치주백월산 하측해풍현고기(治州白月山下即海豐縣古基)로 적혀있으니 1072년 고려 성종12년부터 1195년 명종 25년까지 123년 동안 해풍현이라는 옛고을 이었다는 것이 맞을 것 같았다. 이 옛고을 해풍현에서 지금의 홍주성으로 옮겨왔을 것으로 추측해본다. 이 성지에는 1977년 조영호 홍성군수가 사적비를 세운 것이 눈에 띄었다.

### 산혜암을 거쳐

산의 중턱에는 속칭 '월산절'이라고 불리지고 있는 산혜암이 있었다. 규모는 그리 크지 않으니 그런 대로의 고색이 있었고 도금복질불과 석불 등이 모여져 있었다. 사적을 조사하여보니 1300여년전 무염국사(無染國師)가 창건하였다하니 이 또한 고려후기에 창건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었다.



산혜암 전경



그러나 옛고을 해풍현이 이곳에 있었던 때에는 이 절도 많은 영화가 있었으리라 생각되며 지금도 홍성읍의 많은 신도들이 오고가고 있었다. 더구나 이 절은 수덕사의 고승이었던 만공스님이 왕래하였던 절이라 하며, 그때의 이곳 주지스님이 만공스님이 돌아가실 것을 예견하였다는 일화가 있으니 그 시절 유명하였으리라 생각된다. 그래서인지 백월산 산신이 호랑이를 타고 다닌다는 신화가 있으니 이렇게 고견의 스님이 있었던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닐까 생각되었다.

### 홍주청난사

산혜암 입구로 올라가 산정에 오르면 청난사라는 사당이 있다.

이 사당은 1595년 선조29년에 일어난 반적 이몽학의 난을 그 당시 홍주목사였던 홍가신(洪可臣)이 토벌하여 진압하였는데 그 공을 높이 기리기 위하여 지은 것이었다. 홍가신목사 뿐 아니라 그 당시 공적이 많았던 수사 최호를 비롯한 통정대부 박명



홍주청난사 사당

현, 병마우도병마절도사 임득의, 최찰종사 신경행 등 다섯분이 모셔져 배향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뒤 사우가 폐허되어 1975년 주민인 복선채 등이 당시 조영호군수 지원 하에 개축비를 모아 이 산정에 다시 이축되었다 하며 홍가신 목사의 충정된 치적을 기리기 위하여 이산에는 속칭 홍대감 사당인 홍가신묘도 있었다.

이렇게 홍주주민들은 난리를 막아준 홍가신목사의 은덕에 보답하고자 목각상을 만들어 사당에 안치하고 해마다 정월 보름 안에 길일을 잡아 제사를 모셔왔으니 이 또한 백월산을 오르려면 홍성주민들의 성의에 경건한 마음으로 경의를 표하게 된다.



산 정상에 자리한 팔각정

### 정상에 오르면

정상에 올라서서 팔각정의 쉼터와 넓죽한 바위들에 걸터앉으니 심신이 더 없이 편하여진다. 그리고 백월산으로 부르게된 영험한 산 위에 올라왔다는 신성함은 사방으로 바라보이는 운치마저 성스럽게만 바라보이고 있었다.

내포에 파도쳐 밀려오듯 펼쳐져 있는 600여만 평의 구릉지에 놓여있는 거대한 군함을





백월산 정상

연상케하는 홍성읍 시가지가 서서히 망망대해를 향하여 이제 막 발동하는 고동소리로 변하여 들리는 듯 하였다.

푸르른 창공을 향하여 커다란 눈을 부릅뜨고 승리의 깃발을 울리는 듯한 공설운동장이 한결 근대화스럽고 너른 대지 위에 이제 막 정지작업을 마치고 바둑판처럼 아스팔트길을 그어놓고 그 위에 돛을 울리는 듯한 부영아파트를 비롯한 한전, 검찰청, 법원 등의 건축소리가 발전만을 지향하는 기계소리화하여 메아리쳐 들려오고 있었다.

드높은 은하아파트와 경성, 청솔 그리고 현대아파트들이 배의 돛대처럼 우뚝 솟아 풍향을 받아 막 바다로 나가려하고 있다. 다시 뒤돌아 손으로 채양을 하고 이제 막 낙조가 물들이고 있는 서쪽을 바라보니 점찍은 듯 펼쳐져 있는 서해의 도서가 장관을 이루고 간월도 옆으로 천수만의 AB지구의 너른 평야가 서부극에 나오는 황야처럼 펼쳐져 이국적인 정서를 풍기고 있다.

다시 북으로 바라보면 용처럼 꿈틀대는 용봉산너머로 삼교평야의 너른 들이 넘실거리고 남으로는 그림처럼 둥글게 단독으로 솟아있는 오서산 그 너머로 만수산과 성주산이 꿈틀대고 그 바른편으로는 하얀 모래바닥에 활처럼 굽어있는 대천해수욕장과 오천 앞 바다가 어른거리는 원산도를 비롯한 크고 작은 섬들이 굽이굽이 흐르는 물길 위에 등실등실 떠 있었다.

월산과 그 정상에 오르면 홍성이 세계 속으로 비상하고 있는 또 하나의 약동을 발견할 수가 있다.  
“홍성이여! 무한한 발전을 ...”

하산 길은 발걸음이 가볍기만 하였다.◇

글쓴이는 1941년 충남 아산 출생으로 1967년부터 철도청에 근무했으며 삼포, 예산, 홍성 역장으로 정년 퇴직하였음.  
20년 이상 홍성읍에서 생활기반을 두고 있음.  
저서는 「이야기 속의 山여행」 1998년 출판, 전국유명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음.

【편 집 부】



# 백월산에 비가 나린다

정재범  
홍성읍 오관리

우리고장 사람들이 가장 부담 없이 산행하기로는 월산만큼 부담 없는 산이 없을 것이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매년 한두 번씩 소풍 가는 곳 또한 월산이다. 정상에 올랐을 때의 전망 또한 가관이다. 맑은 날이면 5개 시·군이 눈앞에 전개되기도 한다.

공무원 생활로 틈이 없이 살아오던 우리 내외가 둘만의 한적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 어느 토요일 오후에 월산을 오르기로 약속하고 그 날 오후 2시에 집에서 출발하게 되었는데, 날씨가 걱정되었던 대로 산 입구에 오니 빗방울이 떨어지게 되었다. 출발한 김에 오르기로 하고 1회용 우비를 입고 오르기 시작했다. 10분이 안되어 제법 큰 빗방울로 비를 맞게 되었다. 그 날 산행 길을 상봉까지 설치된 시멘트 길을 택한 것이 무난했다.

나뭇잎에 떨어지는 빗소리 들으며 둘이 맞잡은 손에는 빗물이 시려와도 구애받을 필요가 없었다. 집사람은 자꾸만 옛날 추억을 더듬어 열심히 이야기하면서 걷고 나도 20대 그 시절 이야기를 열심히 들었다. 처녀시절에 총각들로부터 있었던 이야기 듣는 중에 나도 어린 총각시절로 돌아감을 느꼈다.

초가을 산기슭에는 야생화의 꽃잎에 빗방울을 담아 그 빛이 유난히 영롱하여 몇 송이 꺾어 건네 주면 말없이 웃으며 받는 안식구의 모습이 무척이나 사랑스럽게 느꼈다. 쪼들리며 사는 이야기는 안 하기로 했으나 무심히 말해 버리는 시간도 있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는 자식들이 올해 초에 두놈 다 과장으로 승진된 이야기를 하는 아내의 말소리는 흥분된 표정으로 마치 자기만의 자식들인 양 나에게 자랑조로 말하는 모습을 볼 때 오히려 나는 행복한 감정으로 받아드려졌다.

상봉에 오르니 비가 제법 많이 내렸으나 어느새 준비했는지 소주병을 보였다. 고맙게 생각하며 바위틈에 기대서 조금씩 병째로 마셔보는 그 기분 또한 처음 느껴온 즐거움이었다.



“비가와도 비를 맞으며

산에 오르는 즐거움은 변함 없이 즐거웠다”

비를 맞으며

비가 나립니다

빗길을 갑니다

함께 한 두가슴

말이 없어도 비는 나립니다

사랑은 원래 말이 없습니다

잡은 손 마디마디

무지개 빛 환희로 피어납니다

찌든 삶

찌꺼기를

빗줄기로 풀어보내며

비가 나립니다

산길에 비를 맞으며

두가슴 쓸어안고

비나리는 숲으로 가고 있습니다

산을 내려오면서 나는 짐사람에게 중얼중얼 시를 읊어 준다. 빗속을 바라보며 내 시를 듣는 그 모습에서 삶의 조그마한 행복을 지어본다. 비가와도 비를 맞으며 산에 오르는 즐거움은 변함 없이 즐거웠다.



## 남자의 갱년기 증후군



김용신 수필가·김내과의원 원장

남자가 오십 고개를 넘으면 변화가 오기 시작한다. 몸의 각종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특히 남성 호르몬의 생산이 적어져 신체적, 정신적으로 퇴화의 길을 걷게 된다. 뇌하수체의 성장 호르몬이 몸의 모든 컨디션을 조절하는데, 이 호르몬을 우두머리 호르몬이라 부르며, 특히 성호르몬의 분비에 적극 관여한다. 나이 들어 늙어간다는 흔한 얘기의 의학적 설명이 바로 이런 이치다. 이런 시기를 통털어서 갱년기 장애 내지 증후군이라 한다.

여자의 그것을 특히 폐경기 증후군이라 한다. 증상을 보면 우선 마음이 위축된다. 미래가 두려워지고 자신감이 없어진다. 즐거운 공상도 많이 없어지고 사물에 관심이 줄어든다.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고 실제 근육질도 줄어든다. 비관적 생각이 많이 들고 심하면 우울증도 오게 된다. 이 시기에 큰 충격을 받으면 헤어 나오지 못해 우울증 환자가 되거나 심지어 자살을 하기도 한다.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이다.

사업에 실패하거나 가족의 큰 사고나 이혼문제, 신앙의 갈등 등을 느낄 때 느닷없이 들이닥쳐 사람을 잡는다. 신체적 변화도 오는데 남자에게는 뚜렷이 안 보여 본인이나 가족이 잘 모른다. 성생활에 변화를 느껴 그제서야 어림없이 갱년기가 왔다고 생각하며 도움을 찾게 된다.

이 나이가 되면 “쓰지 않으면 퇴화한다”는 법칙이 특별히 의미를 가진다.

전쟁터에서 포로로 잡혀 죽을 고생 몇 년 만에 고국에 돌아온 사람들의 일화 뒤에 발기부전 내지 성생활 장애로 부부갈등이 야기된 경우가 많다.

부인은 생사불명의 남편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기도와 희망 속에서 정말 잘 기다려 꿈같은 만남을 이루었다. 그런데 그 후가 문제다. 남편은 전쟁영웅으로 대접도 잘 받고 풍요로운 생활 속에서 야윈 몸도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런데 부부생활에 암흑이 온 것이다. “쓰지 않으면 퇴화한다”는 법칙이 유달리 성기에 온 것이다. 부인이 아무리 위로하고 정신적 애정을 강조해도, 남편은 나날이 짜증이 늘고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부인을 괴롭힌다.

소설 ‘차탈레이 부인’의 사랑의 경우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지혜로운 노력과 전폭적 지지와 애정이 기적을 이루어낸다. 우두머리 호르몬인 성장 호르몬은 감동적 사랑과 스킨십에 뇌하수체로부터 정상적 분비의 수준까지 올라와서, 다시 성호르몬샘을 자극하는 것이다. 더욱이 요즈음은 치료제가 많이 개발되어서 갈등을 손쉽게 잠재운다.

갱년기! 늙음의 문턱에 선 중요한 시기이다. 애정과 전폭적 지지만이 부부승리의 참 길이 아니겠는가!



# 흥주목사 이수광(李粹光) 편(篇)

- 72/365 5일은 점기초신의 마디 -



배동순 향토사학자

## 1) 24절기도

1년을 기후의 추이에 따라 봄·여름·가을·겨울로 나눈 것. 북반구 중위도지방에 위치하는 우리나라는 봄·여름·가을·겨울 4계절의 변화가 뚜렷하다. 각 계절은 초봄·한여름·늦가을 등으로 세분되기도 하고 초(初)·중(中)·만(晩)으로 세분하여 말하기도 하나, 대체로 3·4·5월을 봄, 6·7·8월을 여름, 9·10·11월을 가을, 12·1·2월을 겨울이라고 한다. 그러나 계절의 시기는 장소에 따라 다르며 분류기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계절 분류방법으로는 크게 천문학적 방법, 기후학적 방법, 그리고 생물계절로 나눌 수 있다.

천문학적 계절이란 천구상에서의 태양의 위치에 따라 계절을 구분한 것이다. 대개 태양이 춘분점에서 하지점까지 이르는 기간을 봄, 하지점에서 추분점까지의 기간을 여름, 추분점에서 동지점까지의 기간을 가을, 그리고 동지점에서 이듬해 춘분점까지의 기간을 겨울이라고 한다. 그러나 태양은 천구상에서 일정한 속도로 운행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정한 4계절의 기간은

서로 같지 않아 겨울·가을·봄·여름의 순서로 짧아진다.

## 2) 72후(候)

태음력을 사용하던 동양에서는 태양의 위치에 따라 결정되는 천문학적 계절이 매년 같은 날에 나타나지 않는 불편을 제거하기 위하여 24절기 72후를 만들어 태음력과 함께 사용하였다. 24절기는 1년을 24등분한 24개의 계절을 말하는 것으로, 태양이 춘분점에 있을 때를 춘분, 태양이 춘분점으로부터 황도상(黃道上)으로 15°만큼 이동해갔을 때를 곡우(穀雨)라고 하는 등, 각 절기의 첫날에 이름을 붙여 사용한다. 그리고 각 절기를 3등분하여 초후(初候)·이후(二候)·삼후(三候)로 나누고 있으므로 1년이 72후로 구분되는 셈이다. 그러나 24절기 72후와 같은 천문학적 계절구분은 해에 따라서는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다.

## 3) 사계(四季)

- 4계(四季 : 봄, 여름, 가을, 겨울)



넓은 의미에서의 봄과 겨울은 길게, 여름과 가을은 짧게 나타나며, 각 계절에는 특징있는 기압 배치형이 연속적으로 30%이상 나타난다. 즉, 넓은 의미의 봄과 가을에는 이동성 고기압형이 30%이상, 겨울에는 시베리아고기압형이, 그리고 여름에는 하계형이 각각 50%이상 나타난다.

이상과 같이 태양고도나 기후요소의 변화에 따른 계절구분보다 우리가 직접 느끼게 되는 계절은 오히려 동물의 활동 또는 식물의 발아·개화·낙엽 등 경관상으로 구별되는 계절인데, 생물계에 나타나는 이와 같은 계절을 생물계절이라 한다. 이를 다시 동물계절·식물계절·생활계절등으로 나누기도 한다.

동물의 생태는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데 동물의 이동·번식·변태·겨울잠 등의 생태다. 동물계절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동물계절의 관측은 보통 동물의 계절현상이 처음 나타나는 시기, 가장 왕성한 시기, 그러한 현상을 볼 수 없게 되는 시기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면, 제비의 경우 날아오는 시기와 날아가는 시기에 대하여 관측한다. 모기와 같이 처음 나타날 때는 그 수가 얼마 되지 않으나, 시일이 지나면서 그 수가 많아지고 마침내 볼 수 없게 되는 동물의 경우에는 처음 나타난 시기, 가장 많이 나타난 시기, 볼 수 없게 된 시기에 대하여 관측한다. 동물계절은 주로 눈으로 보이는 것을 세밀히 관측하거나 소리로 파악한다. 따라서, 누구나 쉽게 관측할 수 있지만, 그것을 체계화하여 동물계절을 적절히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상대에서 제비·기러기·뱀·개구리·나비·매미 등 몇 종류의 동물을 지정하여 동물계절을 관측하고 있다.

식물도 계절의 변화에 따라 그 모양이나 색깔이 변한다. 따라서, 발아·개화·만발·신록·성

숙·홍엽 또는 황엽·낙엽과 같은 식물의 변화를 보고 식물계절을 정할 수 있다. 개화일이나 발아일과 같은 식물계절을 예상한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예상결과는 농업은 물론 기타 산업활동에도 널리 이용된다. 기상대에서는 각 측후소 주위에 지정해 놓은 표준식물에 대하여 식물계절의 관측을 실시한다. 표준식물로는 민들레·백합·국화·매화·개나리·벚꽃·복숭아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4계절이 뚜렷할 뿐 아니라 계절에 따른 기후변화가 심하다. 각 계절의 기후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봄】** 봄에는 시베리아고기압이 약화되면서 떨어져 나온 이동성 고기압과 주로 중국연안에서 발생된 저기압이 자주 한반도와 그 근처를 지나 동진하게 되므로 1년중 일기변화가 가장 심하다. 이른봄에는 동해에서 발달된 저기압 후면에 강한 북서계절풍이 불어오는 경우가 있어 '꽃샘추위'라 불리는 찬 날씨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보통 이동성 고기압 중심부에서는 온화한 봄 날씨가 된다. 봄철 기온은 주간에는 매우 높게 나타나나, 야간에는 상당히 낮아져 일교차가 큰 것이 특징이다. 이는 이동성 고기압 내에서는 수증기압이 작고 바람이 약하고 구름이 없으므로 밤 동안에 지표면이 복사냉각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야간에 지면이 식으면 서리가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서리가 늦봄까지 내리게 되면 싹이 튼 식물에 해를 준다. 늦서리 외에도 봄철에 나타나는 특수한 일기현상으로는 이상건조와 황사현상이 있다. 봄철에 대륙에서 온 공기는 비교적 수증기를 적게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공기가 고도가 높아진 태양에 의하여 가열되어 상대습도가 30% 이하가 되는 현상을 이상건조라



고 한다. 이상건조가 나타나면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때때로 화재주의보가 내린다. 시정(視程)의 악화를 가져오는 황사현상은 화북·몽고·남만주의 황토지역에서 강풍에 의하여 일어난 황사가 고층기류에 의하여 운반되어 우리나라로 이동하여 오기 때문에 발생한다. 황사는 주로 4, 5월경에 4, 5회 정도 내습하는데, 이처럼 봄에만 나타나는 것은 눈이 녹은 뒤에 건조된 황토가 바람에 날리게 되기 때문이다.

**【여름】** 초여름이 되면 태양고도는 계속 높아지고 오호츠크해고기압이 진출하여 날씨는 대체로 맑고 이사량이 증가된다. 그러나 초여름은 장마전선의 북상으로 끝나고 7월중순까지 지속되는 본격적인 장마철이 된다. 장마철에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계속되나 매일 흐리고 비가 내리는 것은 아니며, 2일 내지 3일을 주기로 비가 내리게 된다. 장마전선의 남북 이동에 따라 몇차례의 장마휴식이 나타나기도 한다. 장마전선이 북상하여 만주로 사라지면 북태평양기단의 세력권내에 들게 되어 일최고기온이 30℃이하로 하강하면서 늦여름이 된다. 늦여름에는 북상하였던 장마전선이 다시 남하하여 초가을 장마가 형성되기도 하나, 해에 따라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여름의 특징적인 일기현상으로는 홍수와 한발·뇌우등을 들수 있다. 장마철에 장시간 비가 내리거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하천의 물이 점차 늘어 홍수가 발생한다. 그러나 오호츠크해고기압의 세력이 너무 강하여 장마전선이 오래 접근하지 못하거나, 북태평양고기압이 갑자기 팽창하여 짧은 기간에 장마전선이 북상하게 되면 한발이 나타나는 수가 있다. 또한, 여름철 날씨를 지배하는 북태평양고기압이 고온다습하고 대류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여름철 한낮에 지표가

가열되고 상승기류가 발생하면 적란운이 형성되는데 이것은 흔히 천둥과 번개를 일으킨다.

**【가을】** 가을에 자주 나타나는 기압배치형은 봄과 비슷한 이동성 고기압형이나, 봄에 비하여 비교적 북쪽 경로를 따라 동쪽으로 이동한다. 가을철 이동성 고기압이 줄지어 동쪽으로 이동할 때는, 동서방향으로 놓인 고압대가 형성되어 오랫동안 맑고 청명한 가을날씨가 계속된다. 그러나 이동성 고기압을 뒤따라오는 기압골이 지나갈 때에는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기도 한다. 10월과 11월이 되면 시베리아고기압이 발달하여 북서계절풍이 불어오기 시작하고 일조량은 감소되며, 태양의 입사각도 낮아져 기온은 나날이 내려간다.

**【겨울】** 12월초가 되면 시베리아기단이 계속 남쪽으로 내려와 기온은 영하로 떨어지고 점차 본격적인 북서계절풍이 불기 시작한다. 북서계절풍은 시베리아기단의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흘러나오는 것이므로, 이 바람이 불면 차고 건조한 날씨가 된다. 겨울철의 기압배치는 오랫동안 지속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봄이나 가을과 같이 잘 변하지 않으며, 매일 비슷한 서고동저형의 기압배치가 잘 나타난다. 이러한 기압배치가 나타날 때는 비교적 맑고 차가운 겨울 날씨가 된다. 그러나 서고동저형의 기압배치가 약해지면, 대만 북동쪽에서 발생한 동지나 해저기압이 2~4일에 걸쳐 동쪽으로 이동하여 알류산열도저기압과 합치게 되는데, 이때에는 긴 겨울철이 물러간다.





## 나누는 마음



고광철 수필가·한국문협 홍성군지부 회원

새벽에 잠이 깨어 안마당으로 나와보니 반쪽 달이 서편 하늘가에 걸려 있었다. 부엉부엉 하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린다.

요즘은 짝짓는 시기가 아닌 것 같은데, 가만히 들어보니 무척이나 애처롭게 들린다. 갑자기 깊은 밤 숲 속으로 들어와 있는 기분이다. 벌써 “소설”이 지났으니 겨울에 접어들었음이다. 세월의 무상함이 느껴진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

지난 주말에는 초겨울, 낙엽진 산이 보고 싶어 산에 올랐었다. 그 날 산행은 개울을 따라 오르기로 했다. 여름에는 사정없이 공격하는 말벌들과 뱀들 때문에 계곡 속을 걷기가 어렵지만, 단풍이 들고부터는 계곡 속으로 걸어 올라가는 것도 괜찮은 것이다. 다소 힘들기는 해도 가파른 계곡 흙 속에 버티고 서 있는 잡목 뿌리들의 기묘한 형상과 자연 그대로 온 몸을 드러낸 바위 무리들을 가까이 볼 수 있다. 무엇보다 계곡 쪽을 오르는 이가 없기에 호젓하고 한가한 마음을 간직 할 수 있어서, 늦가을부터 초겨울까지는 가끔씩 계곡 속 개울로 산행을 할 때가 있다. 초겨울의 숲은 이미 울긋불긋 갈아입었던 옷을

낙엽으로 만들어 앙상한 가지 밑에 수북하게 떨구고, 스산한 바람만 위쪽에서 불어오고 있었다.

흐르던 물길이 끊겨 웅덩이로 남아있는 물 속에는 떨어진 낙엽에 가려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움직임 없이 고요하게 모여 있었다. 그렇게 긴 겨울을 지내야 하리라. 흰 눈이 내리고, 쌓이고, 다시금 봄이 올 때까지 작은 몇 마리의 물고기들은 긴 숙면의 품속에서 다가올 봄을 기다려야 하리라.

지나온 세월의 삶을 뒤돌아보아야 하리라. 계곡 개울 바닥에도 여러 잡목의 낙엽이 쌓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숲에서 쥐 두어 마리가 낙엽 속에서 나와, 재빨리 뒤엎킨 나무 뿌리 밑구멍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쌓인 낙엽을 들추어보니 바닥에는 쏟아져 내린 산뱀과 도토리들이 수북하게 그대로 쌓여있었다. 숲 속에 사는 쥐와 다람쥐들의 겨울 양식들이었다. 계곡 가파른 끝자락, 높다랗게 서 있는 산 감나무 가지에도 작은 산새 몇 마리 앉아 산 감을 쪼고 있었다.

숲은 그렇게 모든 생물들이 공생하면서 평화롭게 사는 것 같은데, 너무나 조용한 계곡 속을 혼자서 오르다보니 문득 외롭다는 느낌이 온다. 산뱀일도 이미 모두 떨어져 버리고, 단풍일도



이미 모두 누렇게 퇴색되어 찬서리에 바싹 오그라들어 가지마다 몇 잎씩 버티고 달려있다.

다가올 세찬 눈보라에 그나마 떨어져 날리리라. 계절 따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어지는 자연의 섭리에 숙연한 마음이었다. 계곡 가파른 언덕 끝에 뿌리를 박고, 위태롭게 서있는 늘 푸른 소나무 한 그루를 칙닝쿨이 온통 감고 조여 있었다. 저렇게 악착같이 감아대는 칙닝쿨에 얼마 버티지 못하고 소나무는 죽으리라 생각하니 안되겠다 싶어, 주머니칼을 꺼내어 칙닝쿨 밑동을 모조리 잘라 버렸다. 칙닝쿨의 삶이 원래 다른 나뭇가지를 감고 올라가는 삶이지만, 칙닝쿨에 감겨 가까스로 서있는 나무들을 볼 때마다 애처로운 마음에 가끔씩 그 닝쿨 밑동을 잘라 버린다.

어떤 숲은 온통 칙닝쿨에 점령당하여 모든 나무들이 죽어 가는 곳도 볼 수 있다. 고요하게 서로 공생하며 사는 것 같은 숲도, 적자생존이나 약육강식 사회 같아 우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

한 쪽의 자람이 너무 부족해도, 한쪽이 너무 왕성해도 숲의 공생하는 평화가 깨지는 것이다. 그러나 자연의 법칙이 그러하니, 그저 바라 볼 수밖에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이리라.

십여년 쯤 나는 긴 겨울이 지나고 해빙기가 되면, 삼과 팽이와 낫을 배낭에 넣고 칙뿌리를 캐러 산으로 간다. 이 땅 어디에도 산이 있고, 산 어디에도 흔하고 왕성하게 자라는 칙닝쿨이 있다. 운동 대신 땀을 흘리며 칙뿌리를 캐고, 그걸 썰어 말렸다가 겨울이 오면 달여서 승냥처럼 마시고 있다. 거의 날마다 술을 가까이 하는 술꾼이지만, 이튿날 마른 칙뿌리를 달여 몇 컵씩 마시면 속이 편해서 좋은 것이다.

오월 단오쯤 해서는 시골 주변 어디에도 자

라는 쑥을 베어 엮어 그늘에 말린다. 그것도 함께 넣고 달여서 마셔보니, 뱃속이 한결 편해져 옴을 느낄 수 있다. 몸에 좋다면 뱀이나 개구리나 할 것 없이 마구잡이로 먹어대는 사람들에게 칙뿌리와 쑥을 달여 마시라고 권하고 싶은 마음이다.

칙뿌리를 캐려면 팽이와 삼질로 한참을 파 내려가야 되고, 그러면 온 몸은 땀범벅이 되니 많은 양의 운동 효과가 있다. 또한 잘 캐면 한 구덩이에서 일추 한 자루를 캐 수가 있어 소득이 생기고, 주변에 감겨있던 나무를 살려주게 되니, 바로 1석 3조의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다. 쑥 또한 어디를 가도 지천으로 있고 베어도 이내 쑥쑥 자라는 것이다. 시간 나는 대로 좋은 것으로 베어서 엮어 말리고 보면, 적당한 운동효과와 보약재료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쑥과 칙뿌리를 넉넉하게 준비했다가 주변과 나누어 먹으니 좋은 기분이었다. 올해도 어김없이 쑥과 칙뿌리 말린 것을 가까운 주변에 나누어주니, 고맙게 생각하는 눈치라서 한결 넉넉해지는 마음이다. 그러나 그걸 전해준 나보다는 쑥쑥 잘 자라주는 쑥과 왕성하게 뻗어 가는 칙뿌리에게 고마워 해야 할 것이다. 나는 결코 쑥을 가꾸지도 않았고, 칙닝쿨을 기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 마음이나마 주변과 나눌 수 있는 넉넉한 올 해 겨울이었으면 좋겠다.☆





## 교육방법 변화의 필요성

### 1. 지식이란?

인지적 지식만이 지식이 아니라는 뜻은 인간이 살아오는 과정의 급격한 변화를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지식의 양이 급격히 팽창해 가기 때문에 과거처럼 많이 아는 사람이 유식하다고 할 수 없게 되었다.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지식을 습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암기 위주의 지식교육에서 보다 넓게 예술적 심상(이미지)과 도덕적 규범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지적 지식에서도 진수는 박식이 아니라 생산능력과 활용능력의 근간이 되는 사고력, 창조력, 상상력과 호기심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어제까지의 교육은 편협적인 교육이었다고 볼 수 있다.

### 2. 컴퓨터는 생활기기이다

우리국민 대다수가 휴대폰 하나쯤은 주머니에 넣고 활용한다.

컴퓨터는 이제는 사람과 밀착되어 가고 있다. 학교 교육도 점차 컴퓨터화 되어가고 있다. 지식의 알갱이는 전부 컴퓨터 속에서 꺼내 보면 된다. 10세 전후의 어린이에게 워드프로세서 기능을 훈련시키면 1개월이면 손가락이 안보일 정도로 날렵하게 치는 것을 보았다. 교과 단원의 학습내용도 인터넷 등 필요한대로 찾아서 스스로 공부하면 지도교사에게 배우는 것보다 더 자세히 알 수도 있게 되어 있다. 학교가 왜 필요한가? 그러나 지식의 내용을 찾을 수 있는 기능과 인간으로서의 인성과 사회성, 덕성은 집단 생활 속에서 담임교사를 통해서 지도 받아야만 이루어진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하등정신기능, 즉 암기력이나 단순이해력 등은 컴퓨터가 할 일이라고 믿어야 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미래의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지식은 응용력, 분석력, 종합력, 평가능력과 지적창의성과 생산적 상상력을 요하는 고등정신을 지닌 인간을 육성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교육으로 이루어 내야 되는 것이다. 학교의 모든 교육계획, 교육방법, 교육환경, 국민들이 생각하는 교육의 수준도 이점에 집중되어야 된다고 믿는다.



### 3. 전형적 교육환경 탈피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입시 교육에서 탈피하고 미래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교육의 방향정립이 이루어져야 세계화, 정보화 속에서 우리 후손들이 보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철학적 신념으로 모든 교육방법의 혁신이 간절히 갈구되는 상황이다.

우리 국민 모두가 모든 분야에서 인성을 바탕으로 한 창의력을 갖춘 능력 있는 한국인을 육성해야 할 책임감이 제고되는 현실이다.

인간적인 감수성이 충만한 인간 육성은 오로지 교육의 힘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 4. 교육방법의 혁신

국가 사회적으로 어떤 위기에 이르렀다고 생각되면 국민들의 의식변화와 생활양식의 혁신이 교육방법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교육은 정권운동의 수단으로 교육을 혼란스럽게 한다면 그 나라의 미래는 없다는 것이다. 교육의 제도적 조직과 현상이 근본적으로 요구하는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때 교육개혁이란 단어가 필연적으로 공론화 되는 것이다.

교육의 역할과 기능을 정범모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한없이 복잡하고 예민한 현실 세계 속에서 개인과 국가가 나아갈 길은 도덕적인 인간에게 무한한 창의력을 키워서 미래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육성할 수 있는 교육방법의 혁신이 요구되는 시점에 놓여있다고 본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현실 속에서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 ① 어떻게 하면 도덕적인 사회로 정화되어 서민을 위한 정직한 정치 풍토가 이루어질 것인가?
- ② 외국에 뒤떨어지지 않는 경제성장으로 빈부격차를 줄일 것인가?
- ③ 우리보다 더 잘살겠다고 따라 부치는 후진국들과 앞지름을 억누르는 선진국들과의 갈등 그 틈새에서 약화될 수 없는 국제경쟁력의 극복?
- ④ 우리만이 안고 있는 통일문제?

이와 같은 우리의 현실을 국민전부가 알아서 정치인은 정치를 통해서 기업인은 국가이익을 위해서 일반공무원은 국가 발전방안에 대해서 내실 있는 활동이 절실히 요구되며 미래를 위해서 교육의 질을 가다듬는 교육방법의 혁신 등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 시악(詩樂)의 근원(根源)



박병규 홍성군내포제시조보존통합시우회장

천지가 처음 열림에 음양이 나뉘고 오행(五行)이 서로 나고 생김에 만물이 생기고 비로써 인간과 공존(共存)하게 되었다. 복희씨 팔괘(八卦)로 끈을 맺는 방법으로 정사(政事)를 대신하고, 서계(書契) 지도(之道)가 비로써 행하였다. 황제씨(皇帝氏)는 음률(音律)로 백성을 가르쳤으니 음률 지도가 이로부터 행하였다. 그 뒤 주공(周公)이 예악(禮樂)을 가르치시고 공자(孔子)께서 유학(儒學)을 숭상(崇尚)하여 온 천하에 펼쳐 삼강오륜의 도리인 예악은 항상 몸에 떠나지 않는다 하여 시에 흥을 세우고 예(禮)를 세우시고, 악(樂)을 이르사 예악사어서수(禮樂射禦書收) 지도를 사람에게 가르쳤으니 시서예악(詩書禮樂) 지도는 공자 때로부터 천하에 펼쳤다고 본다. 주자설(朱子說)에 시를 외우고, 글을 읽고, 읊고, 노래하고, 춤추고, 뛰어 항상 생각을 헛되이 버리지 말라하였으니 주자 때에도 가무(歌舞) 지도가 번성하였다.

이로써 보건대 음악의 근원은 인류가 생김으로부터라고 보며 시의 근원은 문자가 생김으로부터라고 본다. 그런 즉 시악음률(時樂音律) 지도는 삼고성신(三古聖神). 삼황(三皇) 오제(五帝) 때로부터 비로소 행하여 모든 것을 그 후 시인 문장들이 호상전승(互相傳承) 한 것으로 본다. 특히 동양 삼국은 언어는 다르나 문화는 같은지

라 우리나라에서도 공자, 맹자의 도(道)는 물론이요, 시악음률과 가무지도가 삼국시대로부터 성행한 것으로 본다. 신라의 향가(鄉歌)와 백제의 백제사, 고구려의 황조가(黃鳥歌)가 고려 별곡(別曲)의 여러 곡에 각각 흥과 멋을 나타내 오다가 여조때와서 시조가악을 지어 부르게 되었다. 조선 초에 와서는 시조발전이 날로 높아져 궁중에서부터 사용해왔다. 사람마다 애창(愛唱)은 하였지만 단 앞으로 전하고 아음으로 발음에 의존할 뿐이었다. 그 뒤 곡을 붙이고 장단과 율(律)을 달아 지금은 크게 문화가 되었다.

식견이 부족하오나 문화요의를 역사에 거울삼아 감히 후세의 학자들에게 기대(企待)를 하오니 만분지일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1. 서문

시조는 우리 겨레만이 가지고 있는 멋스런 시의 노래의 하나이다. 신라의 향가(鄉歌)이며, 백제의 정읍사(井邑詞), 고구려의 황조가(黃鳥歌)는 고려말기에 이르러 형용태도가 확실성 되었다.

이조(李朝) 초기 4대임금 세종 시대부터 성종 24년(1493)에 왕명을 받아 편찬된 악학궤범(樂學軌範, 장악원·성현·유자광·신미평 공저) 권7 악조조(樂調條)에 나타난 악시조와 영조 3년에



편찬된 청구영언(靑丘永言, 남과 김천택)에 나타난 언악시조(言樂時調), 편악시조(編樂時調)와 석북집(石北集, 신광수 공저)의 관서 악부조(樂府條) 권5 기15 19월에 초창 문개설태진(聞皆說太眞) 지금시한마혼진(至今始限馬魂塵) 일반시조 장단을 붙여 장안으로부터 이세춘 창시와 더불어 시조창을 경향에서 문인들이 개창(皆唱) 하였다. 시조악보로서는 명종 때에 시용향악보(時用鄉樂譜) 정간보와 유예지, 서유거 작보와 구라철사금자보(歐邏鐵絲琴字譜, 1788) 이규경 작보의 시조악보가 문헌상으로 고증되고 있다.

그러나 시가형식(時歌形式)은 먼 삼국시절로부터 정형성(定形性)을 띤 단형시체(短形詩體)가 작법상 성행하였다. 대동풍아(大東風雅) 권1(진암, 이보상 공저, 융희 2년)에서 고증하며 신라 신문조때 홍유후설총시(弘儒侯薛總時)에 <인심은 터이 되고>, 고구려 고국천왕때(318) 을과소 시에 월상국소백(越上國小伯)이 백제 의자왕때 성충시에 <못노라 떡나수야>, 고려 의종 22년에 이규보 시에 <일난코 풍지한데>, 고려말엽 공양왕때 포은 정몽주 시에 <이몸이 죽고 죽어> 단심가와 이방원(이조 3대 임금 태종) 시에 <이런들 어떠하며> 하여가로부터 현대 문인들이 3천여수를 지어 부른다. 시조 작법상은 3장 6구체로서 정형성(定形性)을 띤 45자 내외로된 장단가이다. 내용은 충효 도덕, 인륜의 문체이다. 그러나 이조중기부터는 산문시적 장형성인 사설시조와 엮시조까지 파생적 발전하였으며 시조 시의 작법상 주제도 다 양함을 볼 수 있다.

인륜(人倫)·권계(勸戒)·송축(頌祝)·정조(貞操)·감물(感物)·개세(慨世)·우풍(寓風)·절서(節序)·한정(閒靜)·연음(宴飲)·문답(問答)·염정(艷情)·이별(離別)·탄세(嘆世) 등 자연과 인생전반에 이르러 시정을 휘감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시조인들은 작가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며 시조가락을 읊으므로 그 ‘멋’과 ‘얼’이 지은이들의

정신세계를 본받을 수 있다. 시조음악은 우리겨레들의 숨결에 어울리는 음수를 지니고 있으며, 잡스러운 은사를 걸러내 버린 그윽하고도 멋스러운 가락이며, 아름답고 순수한 내용을 담은 찬란한 문예전통성(文藝傳統性)은 국력의 상징이며, 국가발전의 정신적 지주라고 생각하는바 이다.

본보 내용은 횡선정간보(橫線井間譜)로 꾸며지며 경제와 내포제, 완산제, 완제, 영제, 반영제를 분류시켜 채보를 하였기에 질정(叱正)을 바라면서 시조창을 연구하시는 제현(諸賢) 앞에 일조(一助)가 되시기를 바라는 평소집념(平素執念)에서 시조 가악보를 삼가드립니다.

## 2. 내포제 시조와 연원

시조는 지방에 따라 각기 제도가 있으니, 즉 서울제, 내포제, 영제, 완제로 분리되고 있다. 특히 내포제라 하면 충청도 지방에서 발단이 되어 유구한 세월을 갖고, 이에 장점을 말하자면 천부적인 개성과 고저장단과 완급강유에 따라 자연 합리적으로 붙어서 율과 여와 음성양성이 자연 감응하여 천기 자동성으로 붙어야 한다는 것이 가이만인화악지성이다.

본제에 명망 있는 분을 열거하자면 청양에 윤종선 선생, 보령에 김용래 선생, 예산에 오도영 선생, 홍성에 김인희 선생, 서산에 조풍우 선생 이외도 많지만 이만 소개합니다.

### 홍성군내포제시조보존통합시우회 연혁

1. 1992년 11월 도문화재 제17호로 지정 받았음.
2. 1999년 부여에 수련원을 착공하여 2000년 10월에 준공함.
3. 봉사적활동은 소동규와 필자 박병규가 같이 활동하다가 소동규가 작고함으로 김원실 회장과 지금껏 10여년 지도하고 있음.



## 반쪽양반의 건강이야기



윤필준 자연요법 연구가

### 신이 주신 인간의 놀라운 자연치유

지금껏 자연건강법을 20여년간 연구해오면서 조물주는 어찌 이리 인간이란 존재를 절묘하게 만들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더욱 더해진다.

지난 시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간은 육체가 전부이기 때문에 침술이다, 활법이다, 경락술이다, 기수련이다, 섭생이다 하는 건강관련법에 관심을 갖고 환자들의 치유봉사에 임했으나 어떤 이는 놀라운 치유를 보이는 반면 어떤 사람은 별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왜 그럴까? 엄청난 숙제를 안게 되었으며 현재는 그것을 모두 풀어내고 물질적 육체만이 아닌 마음치유를 해야만 완벽한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과 육체에 한정된 치료법으로는 절대적으로 완치에 이를 수 없다는 결론을 갖게되었다.

인간의 존재가 절묘하다는 것은 물질인 육체의 조건도 물론이지만 마음이라는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것을 갖게 됨으로 이것이 나쁜 영향을 받게 되면 반드시 육체적 병으로 나타나게끔 되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면 영사기에 울고있는 필름을 끼우면 스크린에 웃고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웃고

있는 필름을 끼우면 스크린에 웃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원리와 같은 것이다.

우리 인간은 이렇듯 마음에 의해 전체적인 육체가 지배를 받고 통제 받고있는 것인데 과연 어떻게 해야 건강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인가. 그것이 숙제인 것이다.

그러나 그 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며 불가능한 것이 아니나 우리는 그런 단순한 방법에 대해 극심한 불신이나 편견을 갖고 있다.

진리는 단순한 것이며 쉬운 것이다.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가 무한정 있기 때문에 소중함을 모르지만 공기야말로 인간의 생명연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바른 마음을 갖는 것은 사랑하고 기뻐하며 즐겁고 봉사하며 풍요롭고 낙천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키우는 것이다.

기독교, 불교 등 각종 종교를 보면 말씀과 책자 음악 예식 등을 통하여 신앙을 더욱 키우게 하고 지속적인 학습과 교육으로 종교심을 깊게 한다.

우리 일반인들도 매일매일 아침저녁으로 가족이나 주변에게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복 받으세요’, ‘돈 많이 버세요’, ‘성공하세요’ 등의 축



복의 말을 한달 만 할 수 있다면 어떠한 질병도 빠른 시간 내에 호전됨을 자신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두를 통틀어서 자신의 마음속에 새겨 넣으면 그것이 그대로 육체에 나타나는 것이다. 암환자나 당뇨환자, 고혈압 환자 등을 보면 대부분이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못되기를 바라며 심지어는 죽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것을 보았다.

이들을 치유시키는 과정에서 상대에 대한 이런 부정적 감정이 사라지는 순간 90% 이상이 즉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적적으로 호전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재 필자가 연구를 마친 또한 임상시험을 마친 '자율진동건강법'의 경우 손 하나 대지 않고 마음에 필름을 갈아끼워 주기만 함으로써 병원, 의원에서 모두 포기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놀라운 치유법이다.

이 치유법의 실례로 김미연(23세)양은 어릴 적부터 간질을 알아서 현재까지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필자를 만나서 단 한번만의 치유법수련으로 완치가 되는(1년이 지나도 간질이 없음.) 기적을 맛보게 되었을 뿐 아니라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데이트도하고 공부도 하는 등의 치유를 맛보고 있다.

현대의학에서 불치라고 하는 병이 어떻게 이렇게 단번에 치유 될 수 있을까?

또한 유방암으로 인해 좌측유방이 딱딱해져 가다가 두 번 수련 후에 원상태로 회복이 되고 있는 48세 된 이수현 여사의 사례는 인간은 누구든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있다는 놀라운 증인들인 것이다.

사랑하는 홍성군민 및 내포지역민 여러분!

홍성지역에서 가진 추억 중에 서점을 경영하

던 이완수씨의 장남을 치유했던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데 잠시 소개하고자 한다.

이군은 중3학생인데 C형 간염으로 인해 서울 대학 병원에서 6개월간 입원하다 상태가 좀 나아져 집에 내려와 고교입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간신히 학교에 다녀온 뒤에는 쓰러져 쉴 수밖에 없었고 입시준비는 전혀 할 수가 없었는데 부친인 이완수씨의 간청으로 인해 치유에 임했던 결과 다섯 번만에 완치가 되어 피곤함이 없어졌음은 물론 우수한 성적으로 홍성고교에 입학했다.

그 당시에 필자가 치유했던 것은 일반인 누구나 할 수 있었던 침술치료인데 5회만에 기적적으로 치유된 것을 보고 스스로 자만을 했었으나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분석해본 결과 내가 치유한 것이 아니라 환자 스스로의 믿음이 치유를 했던 것이다.

성경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마가 9:23)라는 구절이 있는데 역시 인간은 스스로 낮고자 하는 믿음만 있으면 치유의 기쁨을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이다.

신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 자신 스스로도 자신을 사랑하고 또 남을 사랑할 때 어떠한 질병에 있다하더라도 반드시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나올 수 있다는 믿음. 스스로 치유될 수 있다는 믿음, 내가 태어난 귀한 목적이 있다는 믿음, 그리고 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다면 과연 우리 인간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을까?

차가운 겨울을 맞이하여 우리 홍성군민 여러 제위께서는 더욱더 사랑의 마음으로 훈훈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마음 가득 빌어본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 백두산을 다녀와서



최규원 **홍성경찰서 구향파출소 경장**

7월 9일, 첫째 날

아침 일찍 눈을 떴다. 어릴 적 소풍을 눈앞에 두고 마음을 설레며 잠을 못 이루는 초등학생처럼 잠을 뒤척이다 눈을 떴다. 아침을 먹는 등 마는 등 수저를 놓고서 전날 기쁜 마음에 챙겨두었던 가방하나를 달랑 들고서 가족들의 잘 다녀오라는 인사를 뒤로하고 문을 나섰다. 아침 공기가 시원하게 가벼운 발걸음에 매달린다.

홍성읍 대교리 홍주의사총 정문 앞에 벌써부터 몇몇의 회원들이 인사를 하며 말들을 주고받고 있다. 아마도 저들 또한 설레이는 마음과 미지에 대한 정겨운 그리움을 그리고 있으리라.

관광버스에 몸을 싣고 차는 한번도 밟아보지 못한 땅을 위하여 서서히 미끄러지기 시작하였다. 사진으로나 볼 수 있었던 우리 민족의 영지 백두산 천지를 향하여 우리들을 태운 버스 또한 설레이는 마음으로 우리를 보내기 위하여 출발한 것이다.

18명의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충남홍성지역 64기 일행의 중국여행이 비로소 시작된 것이다.

우리를 태운 버스는 서해고속도로를 줄달음쳐 인천국제공항에 우리를 내려놓고 돌아섰다. 중국국제민항 에어차이나 항공 CA124편으로 인천국제공항 47번 게이트를 통과하여 탑승한 우리들을 태운 비행기는 파란바다와 초록의 대지를 남겨놓고 이국을 향한 궤음을 울리기 시작하였다.

북경 공항에 비행기는 착륙하였고, 우리는 다시 중국내 연길 공항으로 향하는 국내선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하여 대합실을 이동, 15분을 연착한 중국 국내선을 이용하여 1시간 40분의 시간이 걸려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연길 공항에 도착하여 버스 편으로 연변대우호텔에 도착하여 짐을



야시장에 도착하여보니 여러 형태의 노점상을 구경할 수가 있었다  
옥수수를 숯불에 구워 파는 사람, 과일행상, 뱀 및 여러 꼬치와 해물을 파는  
노점상 등 여러 종류의 노점상들이 불을 밝히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풀었다. 북경에 도착하여 현지가이드의 도움을 받아 국내선을 이용할 수 있었다.

기내에서 식사를 하였음에도 우리들은 호텔 식당 내에서 뷔페식으로 된 식사를 하고 호텔 측에서 준비한 축하공연을 구경하면서 음식을 먹은 후 현지가이드 이회(당29세)의 안내를 받아 연변 시내 야시장을 구경하러 나섰다. 우리나라 티코차량과 매우 흡사한 택시를 차량한 대에 4명씩 나누어 타고 약 5분 거리의 야시장으로 향했다. 야시장에 도착하여보니 여러 형태의 노점상을 구경할 수가 있었다. 옥수수를 숯불에 구워 파는 사람, 과일행상, 뱀 및 여러 꼬치와 해물을 파는 노점상 등 여러 종류의 노점상들이 불을 밝히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일행은 널찍한 공간에 탁자 3개를 붙여놓고 자리를 잡고 앉아 주문을 하기 위하여 리어카 노점상을 기웃거렸다. 노점상에는 개구리 뒷다리, 살아있는 뱀, 메추리 등등 20여 가지의 안주가 진열되어 있었고 이를 바라보던 회원들, 특이나 동행한 몇몇 안되던 여자회원들의 입에서는 비명이 나오기 시작하였고, 진열장을 바라보던 회원들 또한 비위생적이라며 내심 내키지 않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들의 시선이며, 현지인들은 자주 먹는 듯 거리낌없는 표정으로 곳곳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다. 꼬치는 상한 듯한 국물이 흘러내리고, 손가락 같이 굵은 번데기는 살아서 움직이고 있었다. 우리들은 그 중에 개구리 뒷다리를 비롯한 서너개의 안주와 맥주, 현지 고량주를 한병 시켜서 이국의 첫날을 기념하는 술을 한잔씩하고서 호텔로 돌아와 잠을 청하였다.

다음날 백두산 천지를 오를 꿈을 꾸면서 그렇게 중국의 첫날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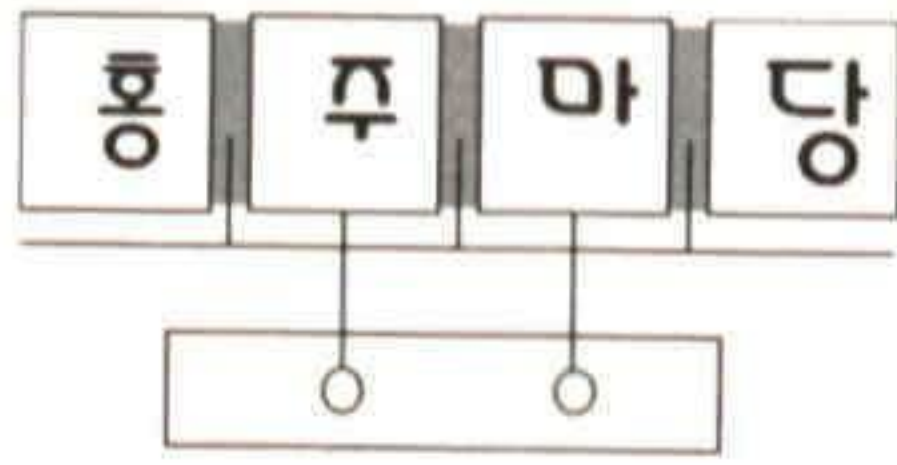
## 애기똥풀꽃



김상구 청운대 교수

小滿 때쯤이면  
 남당리 언덕배기에  
 산 꽃들이 길을 잃고  
 아장은 애기똥풀꽃에게  
 한 자락 비켜선다  
 지난 칼바람소리에 아직  
 옷입지 못한 아카시아도  
 눈을 부비며 뽀얀 속살을 내밀어 본다  
 면사포 같은 안개가  
 실루엣 잠옷을 내려놓고 교태스런 아침을 정리한다  
 진노랑 루즈가 솜사탕처럼 묻어나는  
 그대 보는 것만으로는 아쉬워  
 만져보고 부벼보고 누워본다  
 험버트처럼 사랑했기에  
 노란 눈물이 송글송글 흘러내린다  
 멀리서 바라만 볼걸  
 아카시아 나무도 향기를 뿜어줄텐데  
 내가 놀던 자리가 너무 컸나 보다  
 장미같이 가시라도 달고 있지  
 여름이 다가오면  
 아카시아 꽃잎 수의를 입고  
 잠들 그대를...





## 겨울눈



김임무 **홍성읍 오관리**

겨울 하늘은 하얗고 또는 구름만 지고  
거기서 흰눈이 내려  
양상한 가지의 옷을 입히고

아! 하얀 눈이 또 내려  
목화송이를 만드는구나

그 눈을 맞고 치우며  
또 차는 휘청거리며 갈라고 하는구나

아! 인간이 만든 아스팔트는 미끌고  
마음대로 차가 가지 못하는구나

아! 인간은 눈을 치우고 또 치워도  
하늘이 내리는 함박눈은 막지 못한다

아! 우리가 함께 힘을 뭉쳐  
치우고 또 치우면  
못 치울 것이 없지만

인간은 기지개를 펴지 못하고  
말로만 춥다고 움츠리려 한다

24시간중 8시간 일하고  
또 8시간 생각하고  
8시간 잠을 자며

아! 인간이여  
기지개를 펴고 땀흘려  
다함께 전진하며  
모두 잘 살아보세



## 이웃마을로 떠난 가을여행



김성자 푸른충남21 자연생태분과위원

올해는 종잡을 수 없는 계절 탓에 생활하기가 참으로 혼란스러웠다. 여름은 구멍 뚫린 하늘사이로 비가 쏟아져 유례 없는 피해를 안겨주었다. 비로 눅눅했던 마음과 세상을 가을볕에 바짝 말릴 요령으로 있는데, 이젠 가을도 나를 속이고 말았다. 쏟아지는 햇볕에 나락도 여물고 찾아올 겨울을 준비해야 할 때쯤, 난데없는 한파가 찾아왔다. '음마! 어쩐다냐.. 뭘 날이 이렇다냐' 푸념뿐, 뭘 일인지 알 도리가 없었다.

10월에 일찍 찾아온 겨울바람이 부는 날, 관광성 여행에 익숙한 나로서 환경을 소중히 생각하는 철새축제를 간다는 기대에 참가 주부들을 모집하고, 준비물을 챙기고 확인하는데 발품을 팔았다.

16일 홍성농협주부대학 40여명의 회원과 함께 전시관이 있는 행사장에 도착했다.

서산 천수만 철새축제를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서둘렀다. 새롭게 도로포장까지 되어서 홍성에서는 30여분의 거리지만 청양에 중학생팀, 천안 YMCA 회원과 함께 만나는 프로그램이어서인지 좀더 서두르게 되었다. 자주 지나다니는 길이지만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끝간데 없이 펼쳐진 저 들판이 바다와 갯벌이었던 생각을 하면 인간의 그 무지막지한 우격다짐의 힘이 놀랍다는 생각을 하곤 했는데..

이미 논에서는 몇 해를 거둬서 농사를 짓고 있다. 가을걷이가 끝나 있었고, 쪽 뻗은 도로 옆 한가운데 자리잡은 호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점점이 까맣게 앉은 철새를 차창 밖으로 보면서 솟대조형물과 대형

이미 논에서는 몇 해를 거둬서 농사를 짓고 있다. 가을걷이가 끝나 있었고, 쪽 뻗은 도로 옆 한가운데 자리잡은 호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점점이 까맣게 앉은 철새를 차창 밖으로 보면서 솟대조형물과 대형



솟대조형물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가창오리의 수만 해도 전세계에 분포하는  
25만여 마리의 80%에 달해 국제적으로도 공인 받은 철새도래지이다

### 엘니뇨현상으로 인한 종잡을 수 없는 날씨

도착해서 철새축제 전시관을 둘러보았다. 천수만 자연생태물 전시와 천수만에서 가장 자랑하는 가창오리 군무가 대형 화면으로 소개되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인근에서 나오는 기러기나오는 쌀을 포장하여 다른 기념품과 판매하고 있었다.

본격적인 철새탐험전을 앞두고 든든히 배를 채우기 위해서 준비해온 도시락을, 햇별을 좇아 해바라기를 해가면서 먹었다.



숫대조형물 앞에서 다함께

후루룩 맛도 모르고 먹으면서 추위에 몸서리치고, 철새 탐험하러 차에 올랐는데 안내강사의 말을 듣고 보니 날씨 푸념의 원인이 인간에게서 부터 찾아야함에 다시 놀랐다. 난데없이 나타나

나를 괴롭히는 것은 ‘엘니뇨현상’ 때문이란단다. 오존층이 파괴되어 남극의 빙하가 녹아 멕시코만 앞에 뜨거운 난류가 오래 머물면서, 더운 기운이 아메리카 지역에 공기를 만들어 시베리아 찬 공기를 밀어 올려 동아시아지역으로는 추운 날씨가 시작됐다는 이유였다.

### 철새의 중간 기착지

시베리아에 겨울이 찾아오면 새들은 좀더 따뜻한 곳을 찾아 험난한 길에 들어서게 된다. 해마다 수십만 마리의 각종 철새가 거쳐가는 천수만은, 특히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가창오리의 수만 해도 전세계에 분포하는 25만여 마리의 80%에 달해 국제적으로도 공인 받은 철새도래지이다.

이곳에서는 세계적으로라는 말이 따라다니는 새들이 즐비했다. 노랑부리저어새, 황새, 고니, 큰기러기 등. 한 해만 해도 50여만 마리가 이곳을 머물다간다니 놀랄만 하다.

인간이 만든 문명의 이기로 파괴된 곳이 새들에게 또 다른 중요한 구실을 한다는 걸 보니, 어찌 이해를 해야할지 자못 헛웃음이 나오기도 했다.



중간중간 차에서 내려 새가 놀라지 않도록 간이 막을 해놓은 지점에서, 구수하게 안내자가 새들 살아가는 얘기를 풀어놓았다. 망원경 너머로 철새들의 모양새를 보고, 철새이름과 어떻게 짝을 이루고, 가족끼리 알콩달콩 재미나게 사는 모습과 가슴 찡한 사연도 인간의 이기가 가져다 주는 현실에 따른 아픔을 새들의 생활 속에서도 있음을 이야기했다.

### 제작을 잃은 황새 떠나지 못하고 맴돌아

99년 천수만을 찾아온 황새부부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다. 이제는 희귀새가 되어버린 황새. 무리로 찾아온 3월, 방송에도 보도되어 세상의 관심이 천수만으로 모였다고 한다. 그런데 천수만을 지나 북쪽으로 날아가던 무리 중에 황새가 그만 농약중독으로 죽고 말았던 것이다. 다른 무리들은 다 날아가고 없는데, 그 죽은 암컷주위로 자리를 뜨지 않고 배회하던 새가 수컷황새였던 것이다. 하루, 이틀, 한주, 한달을 넘어서 8월이 다 되었는데, 그 주위를 맴돌고 가지 않는 것이었다. 황새는 일부일처제를 고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작을 잃은 슬픔에, 두고 떠나질 못하는 애절한 사랑이 진하게 밀려왔다. 입으로만 떠드는 플라스틱 같은 인간들 사랑노름이 우스워 보였다.

### 우리구역이 아니네~~~

2000년 11월. 그해도 많은 새들이 천수만을 찾아왔지만, 불행이 함께 찾아

올 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마는... 집단서식을 하고 있는 이곳에 가금콜레라가 돌아, 가창오리 2만여 마리와 청둥오리 등 수천 마리가 죽었다. 이 과정에서 인근 자치단체에서 가금콜레라 확산방지를 위해서 죽은 오리를 격리시키기 위한 처리작업과정에서 '우리구역이 아니네' 하는 지역이기주의로 서로 나서지 않는 행태를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 인간의 몫으로 남은 환경보전

인간의 개발 욕망으로 만들어진 천수만. 바다와 갯벌이 사라졌지만, 이곳은 철새들의 낙원으로 다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점점 이곳을 찾는 철새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환경오염, 서식지의 변화, 농지 민간매각 등, 인간문명의 이기가 그들의 쉼터를 빼앗고 있기 때문이다.

늦게나마 지역주민과 지방정부가 함께 천수만을 지키고, 가꾸어나가는 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이러한 행사를 진행하니 다행이다.

천수만이 언제까지 그 역할을 다할지는, 그것은 인간의 몫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가까운 이웃마을 가을여행에서 알 수 있었다.☆



철새를 관찰하고 있는 사람들



## 한문은 나의 유일한 친구



김현영 문화원 한문교실 수강생

흰 눈이 펄펄 내리던 1월부터 낙엽이 흩날리는 11월의 마지막이 된 지금! 나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가 되면 어김없이 문화원 한문교실에 가 있다. 예전부터 뜻은 있었지만 차일피일 미루다가 받을 들여놓은 것이 이제는 떼어놓으려야 떼어놓을 수 없는 아주 친한 친구가 되었다.

50대 중반을 달리는 지금, 한문공부를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두려움과 막막함에 갈등이 되었지만 이제는 그 고비를 조금 넘긴 것 같다. 한문공부를 하다보니 자아를 발견하고 기억력을 시험해 보는 계기가 되었고, 또 동료들간의 친밀감도 도모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어 1석 3조의 효과를 얻게된다. 이제는 어디를 가든지 신문 잡지나 도로의 표지판과 간판에서 잠시라도 한문과 멀어질 수 없는 지경, 한마디로 폭 빠져버린 아낙네가 되었다.

어느 모임에서 “한문교실 가는 날이라서...”라고 말하면, 그까짓 거 하루 빠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들 하지만 절대로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만큼 생활의 일부를 한문이란 친구가 나에게 활력을 주며, 때로는 한문에 예속됨을 느끼는 순간 순간이 그리 싫지는 않다. 한 글자 한 글자를 외우고, 써 내려가다 보면 하나하나의 오묘한 뜻을 지닌 글자에 아주 매력적인 의미를 느끼게 된다. 향간에는 “한문”이라 하면 딱딱하고, 답답

하다는 선입견을 갖지만 결코 그렇지만도 않음을 짧은 경험으로나마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요즘 IT산업시대로 컴퓨터 바람이 일고 있지만, 그에 못지 않게 한문을 익힐 기회를 잡아 봄직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다. 차츰 조상님들의 깊은 뜻이 잊혀져가고, 또 무관심으로만 흘러버릴 것이 아니다. 우리 어린세대에게도 한문의 학문을 계승시킬 때가 왔다고 본다. 이제는 어머니들의 세대에서만 끝나지 않고, 후세들에게 한문의 진가를 알리는 일을 해야됨을 절실히 느꼈다. 또 나 자신을 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학창시절말고는 응시할 수 없는 한자 급수시험에도 도전해 보았다.

현재 문화원의 동료들은 한자자격시험에서 4급과 3급을 취득했고, 어느 선배들은 2급과 1급에도 패스했다고 한다. 나도 앞으로 계속 도전해서 “사범”까지 획득해 미력한 힘이나마 후세들에게, 아니 한문공부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 싶다는 “꿈”에 부풀어 있다. 물론 산을 좋아하는 분들은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 주기적으로 등산을 가지만, 그에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한문에 관심을 가지고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누렸으면 하는 바램이다.

우리 같이 한문을 사랑하는 모임인 “한·사·모”의 동아리에 동참해 봅시다. 한문 속에서 우리 인생을 배우고 삶의 지혜를 얻는 소중한 자리, 그 시간으로 초대합니다.☺



## 겨울단상(短想)



구명희 홍북면 봉신리

겨울이다.

눈이 기다려지는 계절이 온 것이다.

'겨울'하면 사람들은 저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와 영상들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자면, 군고구마, 군밤, 메밀묵, 찹쌀떡, 사랑하는 사람과의 데이트...

나는 겨울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함박눈이다. 잿빛 뿌연 하늘에서 끝도 없이 어지러울 정도로 떨어지는 아기 주먹만한 눈송이들, 그런 눈을 바라보면 유년시절에 불렀던 동요를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되곤 한다.

"펼 펼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하늘나라 선녀님들이 송이송이 하얀솜을 자꾸자꾸 뿌려 줍니다. 자꾸자꾸 뿌려 줍니다"

같은 물의 성질을 가졌으면서도 눈과 비가 주는 색깔은 매우 다르다.

비가 오는 날은 괜히 우울해지고, 따끈한 한잔의 커피로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만, 눈이 오는 날은, 괜히 마음이 즐거워져 동심으로 돌아가고도 싶고, 이웃집

바둑이처럼 왠지 자꾸 밖으로 나가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기도 한다. 함박눈이 소담스럽게 내리는 날엔 집에만 있는 다는 것이 때로는 내 자신에게 부담스럽기조차 할 때가 있다. 남들에게 낭만과 멋도 모르는 삭막한 사람으로 치부되는 것 같아 왜 집에 있어야만 했는지를 장황하게 설명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생기기도 한다.

어쨌든 그런 날 집에만 있는 다는 것은 껍이나 재미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내가 사는 이곳 홍성은 아직 함박눈이 내리지 아니했다.

강원도는 벌써 폭설이 1미터 이상이나 내려 도로가 끊기고, 통신도 두절된 상태라는데...

나는 '함박눈'하면 떠오르는 어린 시절이 추억이 있다.

지금도 겨울에 동생들을 만나면 꼭 통과의례처럼 짚고 넘어가야만 하는 그런 추억이다.

우리 친정 집은 동네 너머 산등성이에 사과



과수원을 갖고 있었다. 어느 해 겨울인가 함박 눈이 오랑개가 떼지어 몰려오듯이 어지럽게 끊임없이 내리던 그런 날이었다. 산 위에서 눈을 맞으며 동네를 내려다보고 싶은 마음에 혼자서 과수원 뒷산을 올랐다. 조용할 줄만 알았던 과수원에 웬걸! 갑자기 소란이 일었다.

쭈고 눈 쌓인 겨울에 먹을 것이 귀해진 수십 마리의 꿩이 과수원을 헤치며 먹을 것을 찾다가 갑자기 나타난 무단 침입자를 보고 일제히 화를 치고 소리를 내며 날아갔던 것이다.

하얀 눈속을 날아가는 장끼의 화려한 색깔의 꽁지는 너무나 아름다웠다. 그러나 멀리 날아갈 줄만 알았던 꿩들은 오죽이나 굶주렸던지 조금 있다가 다시 날아와서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엔 아무 관심이 없다는 듯 계속 먹이를 찾아 온 밭을 다 헤매고 다녔다.

그런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노라니 꿩을 잡기 위해 뿌려놓은 독약을 문힌 콩을 집어먹고 죽어 가던 장끼가 사랑하는 아내 까투리에게, 내가 죽결랑 절대로 다른데로 개가하지 말고 정조를 지키며 살라고 협박점 사정하던 장끼전 생각이 났다. 집에 내려와서 동생들에게 꿩 얘기를 했더니 고만고만한 세명의 동생들이 말하기를, 밤에 그 꿩들을 잡으러 가자는 것이다. 자기들도 과수원에서 그 꿩들을 자주 보았는데 그놈들은 갈 곳도, 잘 곳도 따로 없는 놈들이라 필시 과수원에서 잠을 잘 거라는 것이었다.

그 날 밤에 우리는 부모님 몰래 단단히 중무장을 하고 집을 나섰다. 주먹만한 눈은 더욱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준비물은 플래시하나와 양초, 성냥, 큰 포대자루하나, 추위와 굶주림에 웅크리고 떨며 자고 있을 꿩들을 살금살금 다가 가서 한마리 한마리 잡아다가 포대자루에 가득 채워 갖고 올 생각을 하니 우리 모두는 여간 신

이 난게 아니었다.

우리는 군화 같은 길다란 장화를 신고 행진하듯이 씩씩하게 산을 올랐다. 굶주림과 추위에 웅크리고 떨며 자고있을 꿩들이 깰까봐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살금살금 과수원으로 들어갔다.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잠자는 불쌍한 꿩들을 주워 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적어도 우리 시나리오대로라면 말이다.

그러나 이게 웬일이란 말인가?

낮에 보았던 그 자리에 가보니 꿩은 감쪽같이 흔적조차도 없었다. 동생들도 각자 자기들이 보았던 장소들을 다 뒤져 모았으나 꿩새끼는 고사하고 깃털하나, 발자국 하나 찾지 못하고 계속 뱅뱅 돌고만 있었다. 이상하다 이상하다를 연발하면서 계속 꿩을 찾던 우리는 그만 지쳐버리고, 인정하기는 싫었지만 포대에 푸드득거리는 꿩을 가득 담고 여럿이 힘을 모아 질질 끌고 내려가려던 계획은 할 수 없이 포기해야만 했다.

추워서 덜덜 떨던 나와 동생들의 등과 이마에 서는 더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빈 자루와 함께 그냥 내려가기에 너무나 허전해하고 실망스러워 했던 우리는 과수원 너머 큰엄마네 고추밭으로 올라갔다. 그곳에는 가을에 고추를 다 따버리고 아직까지 뽑지 않고 그대로 둔 고춧대가 빈몸으로 온 눈을 다 맞으며 버티고 서 있었다. 우리는 약속이나 한 듯이 그 고춧대를 하나 하나 다 뽑아서 눈을 털어 낸 뒤 밭 한가운데에 쌓아놓고 불을 질렀다.

눈이 펄펄 내리는 겨울 한 밤중에 마른 고춧대는 타닥타닥 소리를 내면서 잘도 타올랐고 날아오르는 불티와 더불어 함박눈은 더욱 더 춤을 추며 같이 밤하늘을 이리저리 날아다녔다! 꿩을 못 잡아 실망했던 우리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 잊어버리고 그 불 주위를 돌며 노래도 부르



나이가 들어 갈수록 어린 시절이 그리워지고, 삶이 어렵고 고단해질수록,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키우실 때의 노고를 헤아리게 되면서  
그래도 그 때가 제일 행복했었다는 것을 이제서야 새삼 느끼게 된다

고 신나게 춤을 추었다.

병거지 같은 모자에 두툼한 외투들을 입고 장화를 신고 막대기하나씩을 들고 불 주위를 신나게 돌면서 춤을 추던 네명의 악동들을 생각해 보라. 어느 누군가가 그 기괴한 모습들을 보았다면, 아마 상상 속에만 있는 줄로 알았던 도깨비들이 산을 내려와 소란을 떠는 줄로 알았으리라.

그 날 이후로 지금까지 난 그때처럼 소담스럽게 펑펑 내리는 눈을 만나지 못했다. 펑까지 잡았으면 금상첨화였겠지만 그러나, 펑 한 마리도 못 잡았으나 전혀 실망스럽지 않았었던 그 날은, 오히려 더욱 더 신이 난 동화 속의 하루가 되어서 우리 사남매의 기억 속에 살게 되었다.

봄, 여름, 가을엔 그저 아련한 기억으로 가슴 한켠에 남아 있다가 겨울만 되면, 선명하고도 확실하게 우리의 곁으로 파고드는 영원한 아름다운 유년의 추억이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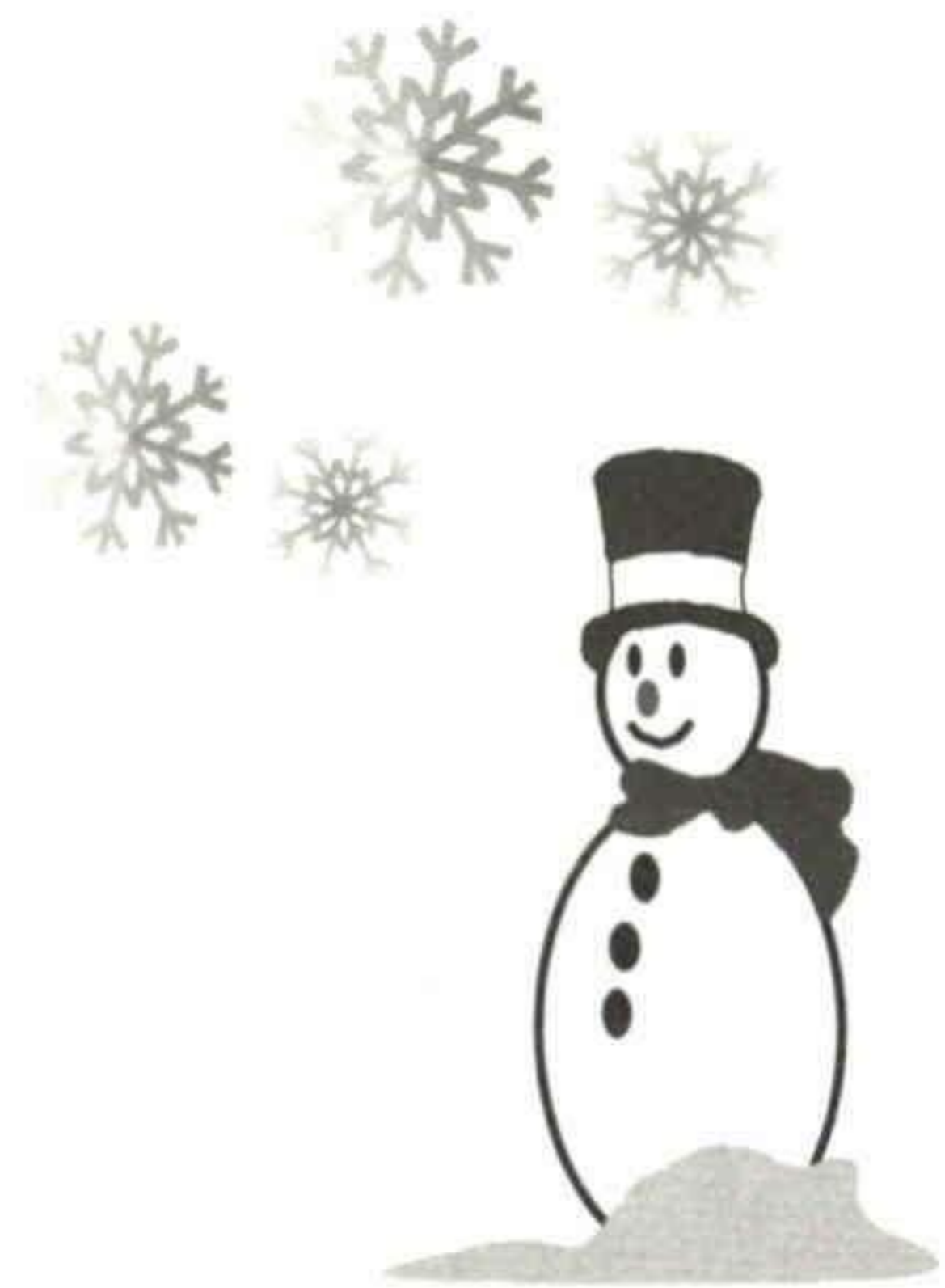
올해는 아직까지 눈다운 눈은 내리지 아니했다.

그러나 겨울이 되니까 그 추억은 다시금 꿈틀거리기 시작했고, 지금이라도 함박눈이 내리기만 한다면 당장이라도 뛰쳐나올 듯이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내안에서 기다리고 있다.

나이가 들어 갈수록 어린 시절이 그리워지고, 삶이 어렵고 고단해질수록,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키우실 때의 노고를 헤아리게 되면서 그래도 그 때가 제일 행복했었다는 것을 이제서야 새삼 느끼게 된다.

그때의 악동들은 지금은 다 어른이 되어서 안산, 온양, 평택, 홍성으로 다 흩어져서 살고 있지만, 조금 있으면 친정 어머니의 생신이라서 다 모이게 되고, 다 모이게 되면 우리는 또 한번 그 때의 일을 조금은 과장되게 떠벌리면서 다시 한번 그때를 추억하며 그리워하게 될 것이다.

다른 날은 몰라도 그 날만큼은 눈이 와주었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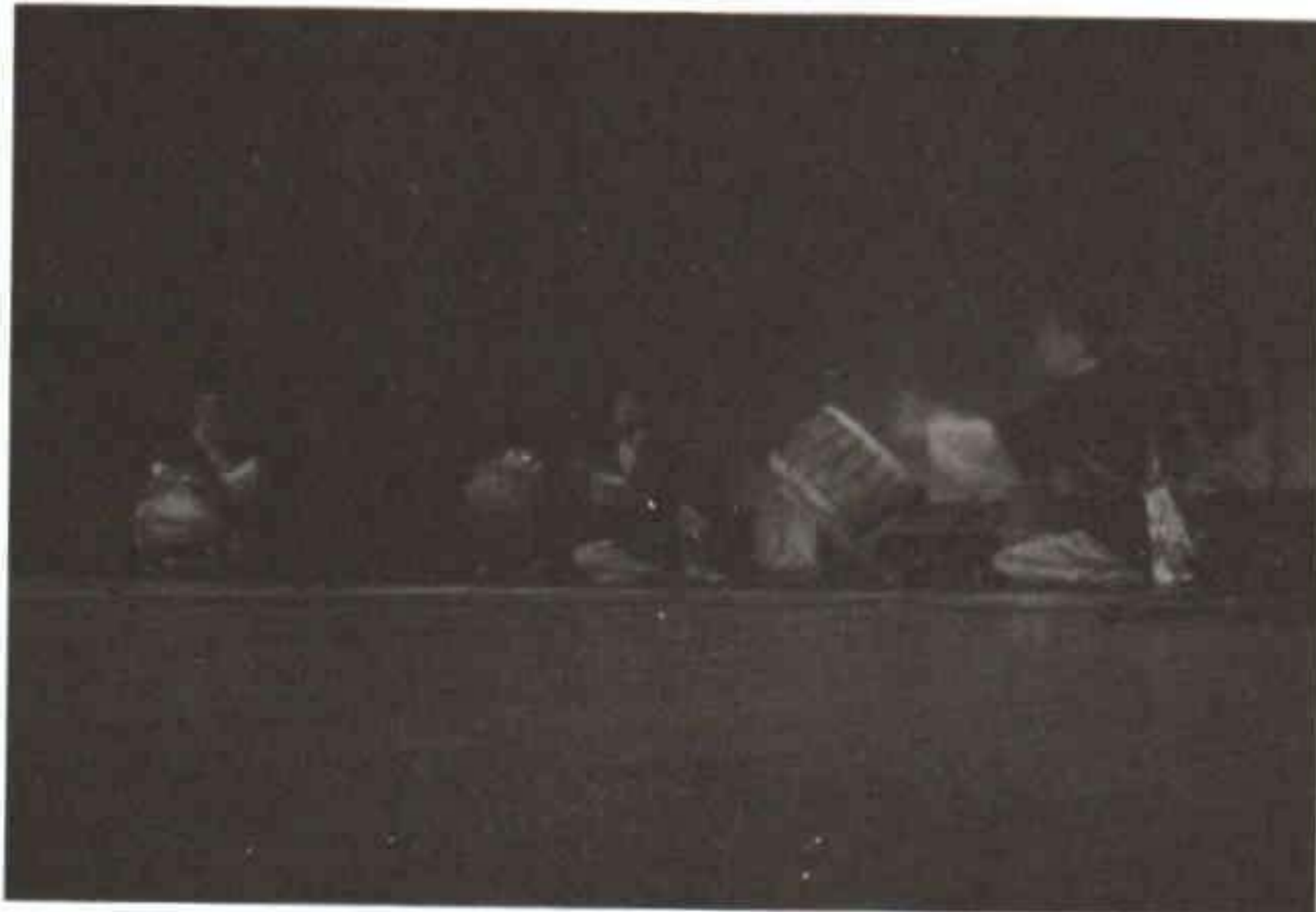




## 열린공간 동지문화센터 활동상황

### 『2002 홍성어울림문화 대축제』

열린공간 동지문화센터에서 주관한 '2002 홍성어울림문화 대축제'가 12월 21일 오후 5시 홍주문화회관에서 흥겨운 우리가락을 시작으로 축제의 장을 열었다.



승무복

1부에는 문곳을 비롯해 비나리, 삼도설장고, 승무복, 삼도농악가락을 동지문화센터에서 활동중인 '어울림' 풍물패, '딩더쿵' 예술단, '백두대간' 풍물패, '또래소리' 풍물패, '누리패' 봉산탈춤, 중학생 댄스팀(수다), '소리사랑' 풍



한량무

물팀이 각각 공연했고, 박영수씨(김유경류 봉산탈춤 보존회장)와 김원배씨(한국여가문화운동연합회)의 찬조출연으로 한량무와 매직마술쇼도 선보였다.

2부에는 봉산탈춤 미얄무(김유경류 봉산탈춤 보존회)와 사물판굿(정동극장 예술단)을 공연했고, 노래마을에서는 그룹사운드가 특별출연을 해주었다. 그 외 야외에서 불우청소년돕기 일일장터를 열어 그곳에 오신 분들께 무료로 고기와 음료, 막걸리를 드렸다.



매직마술쇼

우리고유의 흥겨운 가락과 현대적인 음악이 서로 동화되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에게 문화생활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기회와 즐거움을 주는 자리였다.

첫 무대를 가진 동지문화센터는 열린공간을 지향하는 비영리 홍성지역문화단체로 청소년들의 문화활동의 영위를 첫 목적으로 하고 지역민들의 문화의식의 질적향상과 참여를 두번째 목적으로 하며, 유치원생에서 어르신들까지 누구든지 그곳을 이용 할 수 있는 언제든지 열려있는 곳으로 주민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또 주민들의 문화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수강생을 모집중이다. 프로그램에는 주부풍물강습, 학생풍물강습, 상모연수, 태평소 강습과 또래소리 청소년 풍물패 회원을 모집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문의하시기 바란다.

#### ◆ 열린공간 동지문화센터 ◆

- 주 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281-2(경찰서 옆 지하)
- 전 화 : 041-633-0906
- 홈페이지 : <http://cafe.daum.net/djculture>

- 편 집 부 -





## 생활의 지혜

### 【신발속의 냄새를 없애려면】

- ☞ 발에 땀이 많은 사람이 신을 벗을 때 신발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 이때 냉장고 탈취제를 신발에 넣어두면 냄새가 싹없어진다.

### 【프라이팬에 음식물이 들러붙었을 때의 방법】

- ☞ 요리를 하기 전 프라이팬을 불 위에 올려 놓고 굵은 소금을 넣어 나무주걱으로 저어 볶는다. 소금이 검게 변하면 버린 다음 천으로 잘 닦아내고 기름을 얇게 두른다. 이렇게 하면 요리를 할 때 음식물이 잘 들러 붙지 않아 편하게 요리를 할 수 있다.

### 【과일을 깨끗하게 씻으려면】

- ☞ 요즘은 과일에도 농약을 많이 치기 때문에 과일을 깨끗이 씻기가 매우 어렵다. 이럴 때 식초를 조금 떨어뜨린 물에 과일을 씻으면 과일이 깨끗하게 씻겨진다.

### 【담뱃진 때문에 커튼이 누렇게 변했을 때】

- ☞ 집안에 담배 피는 사람이 있어 그 담뱃진 때문에 커튼이 누렇게 변하는 것을 많이 본다. 이럴 경우에는 커튼을 세탁기에 잠

길 만큼 물을 붓고 소금 반 컵을 넣어 세 시간 정도 담갔다가 빨래를 하면 원래 커튼 색을 찾아 볼 수 있다.

### 【다림질을 하다 옷감이 눌었을 경우】

- ☞ 과산화수소수에 더운물을 30~40% 비율로 섞어 닦아낸 다음, 맑은 물로 헹구어 내거나 옥시풀을 가제에 묻혀 가볍게 짠 뒤 눌은 곳에 올려놓으면 눌은 자국은 빠지면서 두꺼운 천을 대고 다시 다림질을 하면 감쪽같다.

### 【딸꾹질이 쉽게 멈추지 않으면】

- ☞ 일단 딸꾹질을 하면 코를 막고 물을 먹어 보거나 숨을 쉬지 않고 그냥 삼키면 딸꾹질이 멈춘다.

### 【화분이 잘 자라지 않을 경우】

- ☞ 화분이 잘 자라지 않을 경우에는 마늘을 으깨 물에 희석하여 화분에 골고루 뿌려주면 생기가 없던 식물이 잘 자란다.☆

- 편집부 -



표지화 작가소개

이 동 원



- 한국미술협회 충남도지회전(1999-2001) 홍성, 천안, 서산
- 한국미술협회 홍성지부전(1998-2002) 홍주문화회관
- 시선전(1998-2002) 경인미술관
- 여성공모전(세종문화회관)
- 홍대미술교육전(홍익대 현대 미술관)
- 충남 미술대전 도자기 공예 입선(천안시민회관, 2002년)
- 남부 현대 미술제(제주문예회관, 2002년)
- 21세기 생의기원 설치미술(서울월드컵경기장, 2002년)
- 현 한국미술협회 회원, 시선전 회원
- 표지제목 : 『Memory』

편집후기

요즘 겨울을 나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김장준비로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다.

겨울은 한해의 끝이자 시작이다. 봄을  
준비하는 계절때문이기도 하다.

누구나 그 나름대로의 겨울준비와 봄  
철준비로 바쁜 하루를 보낼거라는 생각  
이 든다.

한해의 마지막인 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해 성취감을 갖고 기쁜마음으로 마감  
할 수 있기를 바란다.

홍성문화

2002. 겨울

발행인 이 하 영

편집인 정 재 범

발행일 2002년 12월

발행처 홍성문화원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412-13

TEL.(041) 632-3613, 634-9659

1989. 11. 23 등록번호 충남바01100

인쇄처 조양인쇄사(TEL(041)632-2363)



## 홍성문화원 회원모집 안내

### ■ 회원모집 취지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맞이하여 저희 홍성문화원이 새롭게 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고장 홍성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저희 홍성문화원과 함께 하실 회원을 모집합니다.

회원가입에 특별한 자격은 없습니다. 주민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 회원혜택

- 문화원발행 정기간행물 배부
- 문화원개최 행사에 초청
- 문화원 보유자료 열람 및 대관

### ■ 회원가입

- 문화원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를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 1년회비 : 20,000원

### ■ 문의사항

- 주 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412-13 (우:350-807)
- 전 화 : (041) 632-3613, 634-9659
- FAX : (041) 633-1199



# ○ 홍성문화원 문화강좌 프로그램에 참여할 회원을 모집합니다 ○

저희 홍성문화원은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홍성의 미래를 의식하며 더 밝은 홍성으로 가꾸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여러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문화창출의 산실로 꾸려가려 합니다

## 한문교실, 닥공예인형교실, 서예교실, 주부노래교실, 내고장역사교실, 전통문화사진교실

알찬 프로그램으로 전문강사들을 모시고 쾌적한 교육공간에서  
여러분의 문화생활을 돕고자 합니다

### ◀ 강 좌 안 내 ▶

구분 요일별	프 로 그 램	시 간	과 정	내 용	회 비
화	한문교실 (1층)	오 후 2시~4시	9개월 과정	기 초 생 활 한 자 교 육 및 명 심 보 감 강 의	15,000원
화, 목	닥공예인형교실 (1층)	오 전 10시~12시	3개월과정	종 이 를 이 용 한 인 형 작 품 만 들 기	20,000원
수	서예교실 (1층)	오 후 2시~4시	9개월과정	서 예 기 본 부 터 배 우 기	15,000원
	주부노래교실 (2층)	오 후 2시~4시	년중	가 곡, 국 내 가 요, 외 국 가 요 등 노 래 배 우 기	15,000원
목	전통문화사진교실 (2층)	오 후 7시~8시	3개월과정	우 리 문 화 재 사 진 찍 는 기 본 배 우 기	15,000원
	내고장역사교실	오 후 2시~4시	3개월과정	우 리 고 장 의 문 화 역 사 배 우 기 및 현 장 학 습	15,000원

■ 접 수 : 수시접수

■ 장 소 : 홍성문화원 문화사랑방

■ 문 의 처 : 홍성문화원 사무국(☎ 632-3613, 634-9659)

※ 개강일시는 강좌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홍성문화원은 항상 여러분과 가깝게 있습니다 ○



## 인동덩굴

〈개화기 : 6~7월, 결실기 : 9~10월, 용도 : 꽃·잎은 약용, 밀원용·산울타리용〉



산과 들에 자라는 인동덩굴

우리나라 각처의 산과 들의 양지바른 곳에 흔한 덩굴성 낙엽 관목, 길이 5m, 가을 또는 겨울까지 잎이 붙어 있으며, 줄기는 오른쪽으로 감기고, 소지는 적갈색, 털이 있고, 속은 빔. 잎은 대생, 긴난형, 긴 타원형 또는 넓은 피침형, 길이 3~8cm, 폭 1~3cm, 가장자리에 톱니가 없고, 털이 나 있음. 어린 잎은 양 면에 털이 있으나 자라면 없어지고, 뒷면에 약간 남아 있는 것도 있으며, 잎자루도 5mm, 털이 있음.

꽃은 처음에는 흰색이나 나중에는 노란색으로 변하고, 잎 겨드랑이에서 1~2송이씩 붙고, 가지 끝에 밀생하는 것 같음. 포는 잎모양, 타원형, 난형, 길이 1~2cm, 꽃받침통은 털이 없고, 5갈래, 갈래는 난형, 끝에 털이 있음. 화관은 3~4cm, 입술 모양, 겉에는 털이 있고, 안쪽에는 누운 털이 있으며, 끝이 5갈래, 그 중 1개는 길게 갈라져 뒤로 말림. 수술은 5개, 암술은 1개. 열매는 장과 둥근 모양, 검은색으로 익음. 염색체 수  $2n=18$

제 길을 제 스스로 가게 밝혀주는



HONGSEONG CULTURAL CENTER

홍성문화원